JRI

제주화교 역사 및 문화유산의 발굴에 대한 연구

양세영 · 심규호 · 후림 · 신재경 · 김은영 · 김규태

발 간 사

제주지역에 처음 화교가 살기 시작한 것은 문헌에 따르면 1909년 3가구 5명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10년 동안 제주화교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제주 화교에 대한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불모지대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제주화교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제주화교의 기원과 형성을 고찰하여 이주배경과 유입경로를 살펴보고 정착 및 발전기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교와 제주사회의 관계에 대한 조망을 통하여 제주화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화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와 중화권 교류 활성화의 교두보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제주화교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제주화교와 제주도민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주화교의 불이익이나 차별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화교의 인권 신장은 물론 평화의 도시 국제화도시로서 제주의 면모를 새롭게 살리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 화교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오신 제주중국학회 관계자분들과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데에 애를 써주신 양세영 책임연구원님을 비롯하여 심규호, 후림, 신재경, 김은영, 김규태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제주연구원장 **김 동 전**

목 차 CONTENTS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1–1. 제주–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 토대 마련 ····· 1
1–2. 중국 관련 제주 역사문화 콘텐츠와 기념 근거자료 확보 ····· 1
1–3. 제주 지역사회와 중국인간 바람직한 관계발전 방향 정립 ····· 2
1–4. 한국화교 연구의 영역 확대 ····· 2

2. 선행연구 검토 ····· 2
2–1. 선행연구 현황 ····· 2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

3. 연구범위 및 방법 ····· 4
3–1. 연구 대상 ····· 4
3–2. 연구 방법 ····· 4

Ⅱ. 제주화교의 형성 ····· 6

1. 국내화교의 일반적 현황 ····· 6
1–1. 화교의 개념 ····· 6
1–2. 국내화교의 기원 ····· 7
1–3. 국내화교의 이주와 확산 ····· 7
1–4. 국내화교의 이주 배경 ····· 10
1–5. 국내 화교사의 시기 구분 ····· 11

2. 제주화교의 범주와 시기 구분 ····· 12

3. 제주화교의 형성 ····· 13
3–1. 19C 중국인의 제주 표도 ····· 13
3–2. 제주화교의 효시 ····· 14
3–3. 초기 화교의 구성 ····· 14
3–4. 제주화교의 이주 배경 ····· 14
3–5. 제주화교의 유입경로 ····· 16
3–6. 제주화교 초기 형성 과정의 의의 ····· 17

Ⅲ. 대한제국 및 일제강점기 제주화교의 활동 ····· 18

1. 인구통계 동향 ····· 18
1–1. 정착 및 성장기(1909~1930년): 증가세 지속 ····· 18
1–2. 침체기(1931~1945년): 감소세로 전환 ····· 18
1–3. 제주 인구 중 비중과 지역분포 ····· 20
1–4. 전남 지역 내 제주화교의 비중 ····· 22
1–5. 정주화(定住化) 경향 ····· 22

2. 정착 및 발전기(1905~1930년)의 경제 · 사회적 활동 ····· 23
2–1. 경제적 활동 ····· 23
2–2. 사회적 활동 ····· 27

3. 침체기(1931~1945년)의 경제 · 사회적 변동과 영향 ····· 30
3–1. 1931년 만보산 사건과 영향 ····· 30
3–2. 1937년 중일전쟁과 전시체제의 영향 ····· 31

Ⅳ. 해방 후 제주화교의 활동 ····· 33

1. 인구통계 동향 ····· 33
2. 해방 후 화교 사회 형성 ····· 36
3. 경제활동 ····· 37
3–1. 직업분포 ····· 37
3–2. 상업활동: 음식업 중심 ····· 37
4. 사회활동 ····· 39
4–1. 화교단체 ····· 39
4–2. 화교교육: 화교소학교 ····· 39
5. 화교와 제주사회의 관계 ····· 44
5–1. 제주화교의 지역사회 공헌 ····· 44
5–2. 화교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과 차별 ····· 47
5–3. 사회, 정치적 차별 ····· 51
6. 제주 신화교의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요약) ····· 52
6–1. 조사목적 ····· 52
6–2. 조사경과 ····· 52
6–3. 응답자 특성 ····· 53
6–4. 조사결과 ····· 53

Ⅴ. 제주화교의 인물과 문화유산 실태 ····· 56

1. 제주화교 대표적 인물 ····· 56
   1-1. 王씨 일가 ····· 56
   1-2. 許씨 일가 ····· 57
   1-3. 楊씨 일가 ····· 59
   1-4. 孫씨 일가 ····· 64
2. 화교유적 ····· 66
   2-1. 제주화교 초기 상업활동 지역(포목점, 중국요리점) ····· 66
   2-2. 화교 노동자 일터: 한림 옹포리 통조림 공장 ····· 67
   2-3. 화교소학교 ····· 68
   2-4. 해상호 ····· 68
3. 제주화교의 시공 또는 보수공사 참여로 추정되는 건축물, 사회간접자본 ··· 69
   3-1. 산지항 ····· 69
   3-2. 제주북초등학교 ····· 69
   3-3. 제주도립병원 ····· 70
   3-4. 제주중앙성당 ····· 70
4. 기타유물 ····· 71
   4-1. 고교(高跷), 사자춤 등(한라문화제 참가 중국민속놀이) ····· 71
   4-2. 주요 소장 사진 등 ····· 71

Ⅵ. 결 론 ····· 72

1. 제주화교의 역사적 의의 ····· 72
   1-1. 새로운 개척을 위한 비상한 기업가 정신 발휘 ····· 72
   1-2. 제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사회적 책임 수행 ····· 73
   1-3. 제주지역 다문화 사회의 선구적 모델 역할 ····· 73
   1-4. 제주-중국간 관계증진을 위한 역사적 콘텐츠 제공 ····· 74
2. 제주도의 화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과제 ····· 75
   2-1. 제주화교에 대한 조례 제정 ····· 75
   2-2. 제주화교 기념관 설립과 문화유산의 발굴 및 활용 ····· 75
   2-3. 제주화교에 대한 잔존 규제 실태조사와 실질적 규제 완화 ····· 76
   2-4. 제주화교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 76
   2-5. 산동지역 도시와의 결연과 교류 강화 ····· 77
   2-6. 제주-중국교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씽크탱크 설립 ····· 77

참고문헌 ····· 78
Abstract ····· 82
부 록 ····· 84
1. 제주 신화교(新華僑) 대상 설문조사 ····· 84
2. 사진자료 ····· 100

표 목차

〈표 2-1〉 주요 도시의 개항 시기와 화교 진출 ····· 8
〈표 2-2〉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 화교 인구 추이 ····· 8
〈표 2-3〉 전국 주요 도시 화교직업 분포(1923년) ····· 9
〈표 2-4〉 해방 이후 신 · 구 화교 인구 추이 ····· 10
〈표 2-5〉 19C 중국인의 제주 표도 현황 ····· 13
〈표 2-6〉 일제 강점기 제주도의 인구 추이 ····· 15
〈표 2-7〉 1909년 전남의 화교인구 분포 ····· 17

〈표 3-1〉 일제 강점기 제주화교 인구통계 동향 ····· 19
〈표 3-2〉 제주도 인구 중 화교의 비중 추이 ····· 20
〈표 3-3〉 제주도 화교의 지역별 분포(1926년) ····· 21
〈표 3-4〉 제주화교의 지역적 분포(1930년 10월 현재) ····· 21
〈표 3-5〉 전남 주요 지역의 화교인구와 비중 추이 ····· 22
〈표 3-6〉 제주 화교의 남녀 비율 추이 ····· 22
〈표 3-7〉 제주화교의 직업 분포(1925년) ····· 23
〈표 3-8〉 전국 주요 도시 화교직업 분포 비교(1923년) ····· 23
〈표 3-9〉 1929년 국내 민족별 노동자 임금 비교(圓) ····· 27
〈표 3-10〉 화교단체 성립시기 ····· 28
〈표 3-11〉 만보산 사건과 중일전쟁 이후의 인구 변화 ····· 31

〈표 4-1〉 해방 후 제주화교 인구 변화 추이(명) ····· 34
〈표 4-2〉 1950년대 전국 주요도시 화교인구 변화 ····· 34
〈표 4-3〉 해방 이후 전남지역과 제주 화교의 인구 변화 추이(명) ····· 35
〈표 4-4〉 제주 화교 인구 추이(1999~2008년) ····· 35

〈표 4–5〉 2018년 제주 중국계통 집단 인구 ····· 36
〈표 4–6〉 1954년과 1957년 제주 화교의 직업 분포 ····· 37
〈표 4–7〉 제주지역 화교의 상호 변동과 경제활동 ····· 38

그림 목차

〈사진 3–1〉 신성호 지점 광고 ····· 25

〈사진 5–1〉 1960년대 삼도동 일대 ····· 66
〈사진 5–2〉 서귀포 솔동산 일대 ····· 67
〈사진 5–3〉 옹포리 통조림공장 ····· 67
〈사진 5–4〉 화교소학교 전경 ····· 68
〈사진 5–5〉 해상호 전경 ····· 68
〈사진 5–6〉 1930년대 산지항 전경 ····· 69
〈사진 5–7〉 1947년 제주북초등학교 교사 모습 ····· 69
〈사진 5–8〉 제주도립병원 ····· 70
〈사진 5–9〉 제주중앙성당 ····· 70
〈사진 5–10〉 한라문화제 가장행렬 ····· 71
〈사진 5–11〉 공로 포장 수여식 기념사진 ····· 71
〈사진 5–12〉 포장 증서 ····· 71

제안문

○본 연구는 제주화교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삼으며, 이외에 제주화교 연구를 통해 연구의 공백지대를 해소하여 한국화교사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제주와 중국(중화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함.

○제주화교에 대한 특별법 또는 조례 제정

– 제주화교의 불이익이나 차별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특별법이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특별법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 서울 소재 한성화교협회 및 제주도화교협회(지회)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입법 청원이 필요한 사안임. 하지만 제주도에서 가능한 조례를 통해 제주 노화교를 위한 조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는 제주화교의 인권 신장은 물론이고 평화의 도시, 국제화 도시로서 새로운 면모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임.

○제주화교가 입도한 지 1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화교를 기념하는 기념관이나 문화유산이 없음. 제주화교 기념관을 통해 제주화교의 역사와 자료를 수집하고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진정한 의미의 역사문화, 역사관광의 한 부분으로 삼을 수 있음.

– 특히 현재 폐교 상태에 있는 제주화교소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람.

○제주화교의 인적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발굴하여 제주와 중화권 교류 활성화의 교두보로 삼을 기회 확보가 시급함.

○제주화교는 대부분 산동이 원적 또는 본적임. 특히 연대(煙台), 청도(靑島), 위해(威海) 등은 산동 화교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중요 항구였음. 이곳과 자매결연 등 교류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주 지자체 및 제주의 중국 관련 연구소나 학회 등에 제주화교를 연구하는 단체나 센터 설립 요망함.

연구요약

○「제주화교 역사 및 문화유산의 발굴에 대한 연구」는 입도한 지 백년이 넘는 제주화교의 내력과 활동 및 이와 연관된 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의 결과물임.

○문헌에 따르면, 제주에 처음 화교가 살기 시작한 것은 1909년 3가구 5명임.

– 이후 지금까지 110년 동안 제주 화교는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속해왔음. 하지만 제주 화교에 대한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고 여전히 불모지대나 다를 바 없었음.

–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제주화교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개발과 연계된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는 2장과 3장에서 20세기 초 제주화교의 기원과 형성을 고찰하여 이주배경과 유입경로를 살폈고, 정착 및 발전기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대해 논술했음.

–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제주로 들어와 목공, 석공 등으로 일했으며, 제주도립병원, 제주북초등학교 등 건설에 참가한 바 있음.

– 포목점과 잡화점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기도 했음

○4장에서는 해방 후 제주 화교사회 형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경제, 사회활동에 대해 살폈음.

– 1950년 이후로 제주 화교들이 이전과 달리 주로 중국음식점 등을 경영하여 제주 외식문화의 시작을 알렸으며, 중국음식문화를 전수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했음.

– 1950년 해상호를 타고 양씨 일가가 들어오면서 중화음식점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음.

– 제주화교의 전체 인구가 300여 명에 달하면서 화교사회가 형성되어 중흥기를 맞이했음.

○화교 단체와 학교에 대해 살펴보았음. 특히 제주화교소학교 교사와 인터뷰를 통해 설립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구했음.

– 제주화교소학교는 제주화교의 후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서 시작하여 제주화교를 포함하여 한국내 여러 지역 화교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학교임.

– 현재 교사는 남아 있으나 폐교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화교와 제주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화교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제도적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도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밝혔음.

○신화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992년 이후 제주에 유입되기 시작한 신화교의 정체성과 의식 등을 조사하고 부록으로 실었음.

○5장에서는 제주 화교 가운데 몇 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대표적인 일가 및 인물에 대한 개인별 연대기를 조사했음.

– 대표적 일가는 왕씨, 허씨, 양씨, 손씨 등임.

○제주 화교의 역사적 의의를 조명했음.

– 새로운 개척을 위한 기업가 정신 발휘함

– 제주사회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책임 수행

– 제주 다문화사회의 선구적 모델 역할

– 제주와 중국 교류에 필요한 역사적 콘텐츠 제공

○화교유적과 화교와 관련된 건축물을 사진과 함께 열거하여 중요 자료로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신화교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과 일부 사진을 부록으로 실었음.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1-1. 제주-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 토대 마련

- 제주는 기록상 확인된 것을 기준하여도 화교가 도래한지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는 최근 제주가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투자이민과 관광 등 적극적인 중국인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관계(對中 關係)를 효과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줌
  - 제주화교의 역사 콘텐츠는 관시(關係)가 중요한 중국과 교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1)]
- 따라서, 제주-중국 간 경제-문화-관광-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 마련을 위해 제주화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1-2. 중국 관련 제주 역사문화 콘텐츠와 기념 근거자료 확보

- 제주화교 인물과 유산을 발굴하여 중국 관련 문화콘텐츠를 확보함으로서 제주관광 자원으로 활용
- 현재 화교생활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2대 화교는 극소수가 생존하고 있으나 대부분 고령이고 기억도 감퇴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자료의 망실 및 증언자의 사거로 인해 콘텐츠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급함

1) 주간조선, "화교 출신 기업인 시대" 2373호, 2015.9.7

– 즉각적인 인터뷰와 구술 채록 현지 확인 연구가 절실한 상황

■ 그동안 관심부족으로 잘못 알려진 제주화교의 도래 시점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정립하고 발굴 인물과 유물들을 활용하여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근거 확보

– 화교 내도(來道) 기념 사업추진과 화교 기념관 설립의 준비자료로 활용

1–3. 제주 지역사회와 중국인간 바람직한 관계발전 방향 정립

■ 제주화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제주도민의 화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함양

– 성숙한 다문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외국인과의 상호이해가 선행요건

■ 선주(先住) 화교의 역할 모델(ROLE–MODEL)의 확립으로 제주거주 중국인의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1–4. 한국화교 연구의 영역 확대

■ 제주화교 연구는 한국화교 지역사 연구의 지경을 확대하는데 기여

– 제주화교는 과거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산, 군산 등의 지역에 비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연구 시도는 국내화교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것임

2. 선행연구 검토

2–1. 선행연구 현황

■ 그동안 국내화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종족성(ethnicity)과 집단이주현상, 정체성 등과 관련된 인류학 및 사회학적 연구, 정치학과 국제관계학 측면의 연구가 주류를 차지함

■ 화교에 대한 연구는 1992년 한중수교와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의 극복방안으로 화교자본의 유치가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연구는 지역화교, 화교경제 및 경영, 중화요리, 주물업, 이발 및 양복, 건축 등 화교의 생활사 등으로 확대 추세

- 지역 화교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초기의 연구는 전통적인 화교의 중심지이자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인천지역에 집중됨. 그러나 점차 연구대상이 마산, 대구, 부산, 군산, 전주, 강원도, 목포, 신의주, 원산 등의 화교에까지 확대
- 제주화교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는 것은 국내의 경우 "문미라(2009), 근현대 화교의 제주도 정착과정과 사회적 위상(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이 유일하며, 현지 화교에 대한 인터뷰 연구를 통해 제주화교에 대해 처음으로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주로 구술 자료에 근거하여 인구통계학적 접근이 취약
- 해외의 경우 "신재경(2000), 제주도 華僑의 어제와 오늘(오사카 한국화교연구회)"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구술자료에 입각한 제주화교에 대한 시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상기 문미라(2009)의 연구는 이를 참고한 자료이기도 함
- 또한, 신문 및 블로그 기사들은 대부분 1950년 양낙산 일가의 해상호(海祥号)를 통한 피난을 제주화교의 시초로 보고 있으며 주로 화교 소학교 등 부분적 내용에만 관심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이에 따라 제주화교에 대한 기초적인 인구통계부터 시작하여 제주화교의 기원, 경제-사회적 활동, 제주화교의 유출입 변동유인 분석, 지역사회와의 관계, 화교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 제주 화교사가 주는 정책적 함의와 대안 제시 등 본격적인 제주화교 연구가 필요[2)]
-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먼저 제주화교에 대한 기초적인 인구통계 분석, 제주화교의 형성, 인구변화의 요인과 특징, 주요 경제 활동, 화교단체-학교 등 사회적 활동, 해방이후 내륙 화교들의 입도 현황, 화교의 지역사회 기여내용, 화교가 남긴 건축-자료 등 문화유산 발굴, 제주-중국관계 발전을 위한 화교정책 과제 등 종합적인 제주화교 연구를 시도하려고 함

2) 본고는 연구의 성격상 방대한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발굴된 내용을 정책 제언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분명한 문헌적 근거와 검증된 면담자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나타난 제주 화교사와 유물을 보고 하는데 주력하려고 함. 보다 심층적인 史實의 논증과 추정은 별도 연구논문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

3. 연구범위 및 방법

3–1. 연구 대상

■ 연구 기간으로는 1909년–2019년의 110년을 범위로 하되, 지금까지 조명이 안 된 1909년(대한제국시기)부터 1945년(일제강점기)까지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광복 이후에는 중요한 사건(중국 국공내전, 한국전쟁, 1992년 한중수교, 화교에 대한 영주권 부여 등) 발생을 중심으로 추적하고자 함

■ 내용면에서는 제주 이주 1–3세대 화교의 동향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연구, 1992년 수교 후 이주한 중국인의 활동은 보조적으로 연구

3–2. 연구 방법

3–2–1. 문헌연구

■ 위와 같은 연구 범위와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1차적으로 문헌조사를 시행, 먼저 "濟州道誌" 등 기본 지역사료(史料)와 화교의 인구동향과 같은 기본 통계 확보를 위해서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국세조사보고(조선총독부 발간)" 등을 활용

■ 다음으로 전반적인 국내화교의 역사와 동향, 핵심 연구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70년대 이후 발표된 학술자료와 학위논문을 검토

■ 또한, 해방이전의 화교활동에 대한 국내문헌의 부족으로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朝鮮に於けろ支那人(1924)"을 중심으로 "조선경제잡지(1929)"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중국 및 대만 자료로는 "華僑誌(1958)", "朝鮮華僑史(1991)" 등을 참고

■ 공식자료나 연구문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사건의 내막이나 사회적 인식을 이해하고, 통계자료가 갖는 단면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문 등의 관련 기사를 활용

3–2–2. 현지조사

■ 문헌조사 방법은 연구의 뼈대를 구조화할 수는 있으나 입체적인 실체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면담방식과 현장관찰 방식을 통해 보완

■ 면담조사는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에 제주에 이주한 1대 화교들이 대부분 사거한 상황이므로 대상 집단을 현재 생존하고 있는 2대 화교 중 해방 전 출생 화교로 중심으로 설정

하고, 2대 화교가 없거나 면담이 어려운 경우 3대 화교도 포함하여 핵심그룹 10명 내외를 선정하여 집중 면담하되 필요한 경우 면담자를 추가하여 조사 시행

- 현장 관찰은 제주화교들의 호적, 화교협회와 화교소학 관련 자료, 자서전과 사진 등 조사, 화교유적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 방문 관찰과 수집 병행

Ⅱ. 제주화교의 형성

1. 국내화교의 일반적 현황

1-1. 화교의 개념

■ 중국인이 다양한 이유로 외국으로 이주한 역사는 수천 년을 넘지만 "화교(華僑)"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지칭한 지는 근대에 들어서임

– 일반적으로 1898년 중국인이 일본 요코하마에 학교를 설립하며 화교학교(華僑學校)라고 명칭을 부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3)

– 그 이전에는 국가 간 문서 등에 청국인(淸國人), 청조인(淸朝人), 청인(淸人), 청상(淸商)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 문자적으로 화교의 "화(華)"는 중국인을 의미하며, "교(僑)"는 임시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

■ 1929년 중화민국 헌법에는 화교를 "외국 영토에 거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모든 중국인을 통칭"하는 것이고 정의함4)

■ 현재 중국 정부는 화교(華僑, Chinese sojourners), 화인(華人, Ethnic Chinese)으로 나누고 있는데, 화교는 부계(父系)주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조상이 중국인으로 아직도 국적을 유지한 집단을 지칭하며, 화인은 현지의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국적을 갖지 않은 집단을 말함5)

– 학계에서는 여기에 화예(華裔)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화인 중에서 현지 교민사회의 일원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자신을 중국계로 인식하는 집단을 말함

■ 이상의 개념에 따르면 국내화교는 근대에 한국에 유입되어 일정기간 거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중국인이라 정의할 수 있음

3) 진유광(2012),중국인 디아스포라, 서울: 한국학술정보, P 22
4) 전게서, P 22
5) 양필승,이정희(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 10

■ 최근에는 해방이후 중화민국(대만)을 유지해온 화교를 新華僑, 1992년 한중수교이후 대륙에서 유입된 중국인을 舊華僑(또는 노화교)라 부르는 경향이 있음

■ 한국에 귀화한 화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華人으로 구분하여 부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화교의 후손은 국적에 관계없이 화교로 부르고 있는 추세

1-2. 국내화교의 기원

■ 국내화교는 1882년 임오군란시 파견된 청군의 군역상인을 효시로 하고 있음[6]

–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청국은 吳長慶 제독과 3,000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게 하였고, 이 때 함께 수행한 청국 상인은 40여명으로 청군을 상대로 한 군역활동이 주 임무였으나 청군 주둔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상업활동을 하기 시작

– 청국은 이어 조선정부와 1882년 10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청의 종주권을 강화하고 청국상인의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으로서 화교 상인의 국내진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

■ 1882년 이전에도 명 · 청 교체기 등에 유민들이 한반도로 유입되었으나 동화되었고, 17C 이후 황해에서 조난을 당해 표류 중 구조된 청국인들도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간 일시적 난민의 성격을 갖기에 화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이전의 중국인들이 정치적 성격의 이주 또는 난민 성격의 일시적 도래임에 비해 1882년 이후에는 일정기간 체재 목적으로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였으며, 교민단체를 조직하여 사회생활을 하였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화교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음

1-3. 국내화교의 이주와 확산

■ 1882년 이후 화교는 청국의 비호 아래 한성과 인천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원산 등 개항장에 조계지를 확보하는 등 거점을 확대하였음

– 이에 따라 1883년부터 청일전쟁 이전인 1893년까지 112명에서 2,182명으로 화교 이주인구가 대폭 증가하였음[7]

■ 1894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함에 따라 화교는 더 이상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을 수 없었고, 초기의 특권적 지위를 일본상인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으며 그 동안 상업적 기반을 구축했던 상당수 화교들이 본국으로 철수하였음

6) 이정희(2018), 화교가 없는 나라, 서울: 도서출판 동아시아, P. 27
7) 왕은미(송승석 옮김), 2013, 『동아시아 현대사 속의 한국화교』, 학고방, P 60

■ 그러나 1895년 들어 영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일본의 독점적 영향력이 불가능하게 되자 본국으로 물러났던 화교들이 다시 이주해 왔고 과거 청군의 보호 하에 상업 활동을 추진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행상활동을 전개하였으므로 점차 청일전쟁 이전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

– 1899년 청한통상조약 체결로 개항장 이외 지역에서의 상업 활동이 허용

■ 전국 주요 도시로 화교의 이주가 확산되는 가운데 1910년에는 1만 명을 돌파

〈표 2–1〉 주요 도시의 개항 시기와 화교 진출[8)]

도시	개항 연도	진출 연도
부산	1876	1884
원산	1880	1884
인천	1883	1883
목포	1897	1893
진남포	1897	1897
군산	1899	1899
마산	1899	1899 또는 1900
청진	1908	1908
신의주	1910	1906
한성	na	1882
평양	na	1882
대구	na	1905

■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후에도 국내화교는 193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6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함

〈표 2–2〉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 화교인구 추이[9)]

연도	화교인구(명)
1883	112
1893	2,182
1910	11,818
1920	23,989
1925	46,196

8) 자료: 小田內通敏, 1925, 朝鮮に 於ける 支那人の 經濟的勢力, 東洋講座, 6–7쪽;이정희,2005,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대구사학 80집, 75쪽 재인용; 마산의 화교진출연도는 문은정, 2002, 20세기 전반기 마산지역 화교의 이주와 정착, 대구사학 68집, 156쪽 참조

9) 자료: 1883년과 1893년은 楊昭全 · 孫玉梅의 『朝鮮華僑史』(1991), 130쪽, 1910년이후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참조

연도	화교인구(명)
1930	67,794
1931	36,778
1936	63,981
1937	41,909
1940	63,976
1943	75,776

■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국내화교들은 포목업과 잡화상, 중국음식점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과 주물,양말 제조업 등 공업, 채소재배 및 판매를 주로 했던 농업, 목공과 석공, 와공 등 건설업, 단순 노동 등 다양한 직업을 통해 왕성한 경제 활동을 영위하였고 국내에 화교사회를 형성

– 상업이 주류를 차지하고 단순 노동, 농업, 건설업과 공업 순으로 직업분포

〈표 2–3〉 전국 주요 도시 화교직업 분포(1923년)[10]

(단위: 戶, %)

구분	서울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합계	비율 (%)
포목점	13	11	29	27	9	19	7	11	18	7	155	5.45
잡화	84	38	47	–	4	–	15	40	12	23	287	10.10
중국음식	159	35	7	12	6	23	19	13	17	17	328	11.54
호떡 등	193	35	16	3	26	11	45	–	–	19	360	12.67
이발	31	8	1	1	–	–	3	6	2	5	60	2.11
농업	19	135	4	14	20	15	114	6	42	22	437	15.38
단순노동	25	12	–	–	9	4	68	337	13	14	484	17.04
목공	58	4	–	–	1	3	6	12	–	6	97	3.41
석공	49	4	–	–	3	–	3	–	5	–	70	2.46
기타	200	162	3	–	24	–	13	55	40	19	562	19.78
합계	831	444	107	57	102	75	293	480	149	132	2840	100

■ 1930년 이후에는 1931년과 1937년 각각 만보산 사건과 중일전쟁의 여파로 화교의 본국 철수가 늘어나 일시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회복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임

– 중일전쟁이후 중국본토와의 무역이 통제됨으로서 화교들의 주력 생업이었던 상업부문이 타격을 입게 되어 지역적으로 남한지역은 인구가 침체된 반면 북한지역은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기지 개발 수요로 값싼 중국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화교인구가 숫자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10) 자료: 조선총독부, 朝鮮に於ける支那人(1924)의 지역별 내용을 재구성

■ 해방 이후에는 귀국 화교의 재입국이 늘어나고 중국대륙과의 무역 재개로 1949년 까지 일시적인 부흥기가 찾아오나 대륙의 공산화와 이어 6.25 전쟁으로 인해 국내화교들은 중국 본토와의 연결이 차단되고 생활기반이 파괴되는 등 타격이 컸으며 그 결과 인구의 자연증가에 의존하는 침체기에 빠짐

■ 1974년을 분기점으로 국내 화교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에 반해 1992년 이후 유입되는 신화교는 구화교의 10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인구가 급신장 추세

〈표 2-4〉 해방 이후 신 · 구 화교 인구 추이[11]

연도	화교 인구(명)	신화교(중국인) 인구(명)
1948	17,443	–
1954	22,090	–
1960	24,723	–
1970	31,918	–
1974	34,913	–
1980	29,254	–
1985	24,742	–
1992	22,563	–
2002	21,782	–
2009	20,400	178,937
2018	20,433	207,522

1-4. 국내화교의 이주 배경

■ 이정희(2018)는 화교의 이주배경을 일반적으로 배출요인(push factor)와 유인요인(pull factor)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12]

■ 그러나 2 요인을 이론적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작용했다기 보다는 상호결합되어 작용한 경우가 많아 상관적으로 보아야 함

■ 배출요인(push factor)으로는 무엇보다 중국 국내상황의 불안과 재난을 들 수 있음

– 서구열강과 일본의 지속적인 식민지화를 위한 침탈, 1899년 의화단 사건, 청조 멸망 후 군벌의 발호, 국공내전, 중일전쟁 등의 정정 불안은 경제생활의 피폐와 더불어 많은 난민을 유발하였고 이

11) 자료: 1948년에서 2002년까지는 인천발전연구원, 2003, 한국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와 왕은미(송승석 옮김)의 전게서, 2009년 이후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근거(화교만의 공식적인 통계는 생상되지 않아 국내 대만 국적인을 화교로 간주하였기에 정확한 화교숫자는 통계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12) 이정희(2018),전게서, p 31-33

들 중 상당수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선으로 이주하게 된 것임

– 특히, 국내화교 대다수의 출신지로 알려진 산동성은 과잉인구와 홍수와 가뭄 등 잦은 천재지변에 따른 식량부족, 의화단 사건의 진원지로서의 피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마적 떼의 준동, 군벌의 착취 등으로 19C 말부터 동북 3성과 조선으로 대대적인 이주(exodus)가 일어남[13]

■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는 먼저 대한제국기의 근대화를 위한 새로운 수요발생과 일제의 식민지 개발을 위한 건설 공사 및 공업화 추진으로 시장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자본력을 가진 상인들의 경우 조선에서 무역과 도매상으로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내에서 합자를 통해 상점형태로 진출하였고 점원들도 동반 이주

– 노동자의 경우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수준인데다 값싼 임금과 근면성으로 일본인과 조선인 사업주들이 선호

– 화농의 경우 조선의 채소수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품종과 새로운 농법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

– 건설과 토목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인 석공, 목공, 와공 등 건축 관련 기능공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근면성, 기술 등으로 시공자들의 호평을 받음

■ 아울러 이미 진출한 화교 상점이나 음식점, 주물공장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국내 고향이나 친척 중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1–5. 국내 화교사의 시기 구분

■ 양필승 · 이정희(2004)는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한국 화교사를 상업 활동의 관점에서 국내 화교사를 6개의 시기로 나누어 보고 있음[14]

– 정착기: 1882년부터 러일전쟁 직전(1904년)까지

– 발전기: 1905년 을사늑약 체결부터 만보산 사건 발생 직전인 1930년까지

– 침체기: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1945년 해방까지

– 일시적 회복기: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 쇠퇴기: 한국전쟁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 재도약기: 그 이후 현재까지

■ 이러한 구분은 상업 활동을 중심으로 공업 등 다른 부분과 지역별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구 변화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보임

13) 당시 산동성의 극심한 자연재해와 기근현상에 대해서는 이옥련, 2005, 『근대 한국 화교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59, 124–125쪽 참조

14) 양필승 · 이정희, 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6쪽

2. 제주화교의 범주와 시기 구분

■ 제주화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제주로 이주하여 거주해온 구화교와 그들의 2–3대 후손 중국적을 대만으로 가진 자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본고는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한국 귀화 화인과 1992년 수교 후 대륙에서 이주한 중국인(신화교)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함

■ 제주화교 사회의 시기 구분은 기본적으로 양필승 · 이정희(2004)의 전국화교사 구분방식을 토대로 하되, 제주화교 사회의 특징에 맞추어 다음 5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음[15)]

– 정착 및 발전기: 최초 유입시기부터 1930년까지

* 한성, 인천과는 달리 제주화교는 개항 도시가 아니었으므로 화교가 이주하여 정착과 함께 발전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침체기 : 1931년부터 1945년 해방 전 까지

* 전국화교와 마찬가지로 만보산 사건(1931년)과 중일전쟁(1937년)의 타격으로 상당수 제주화교 철수, 인구 감소

– 회복기 및 쇠퇴기: 해방 후부터 1991년 까지

* 제주화교는 마카오 무역중계, 대륙과의 무역재개로 일시 호황을 누렸던 전국화교 사회와는 달리 내륙 화교의 피난 등으로 인구 면에서 회복기를 보였으나 70년대 후반이후 점진적인 쇠퇴기의 모습을 보여줌

– 신도약기: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현재까지

* 한중수교 이후 관광, 투자이민 증으로 중국인(신화교)의 입도 증가

15) 제주화교는 정착기가 주요 개항도시에 비해 늦어졌다는 점과 만보산 사건(경과와 내용은 후술)으로 인한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필승 · 이정희(2004)의 시기구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제주 현실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음

3. 제주화교의 형성

3-1. 19C 중국인의 제주 표도

■ 제주는 지형적 위치로 인하여 과거로부터 주민들이 해상활동과정에서 중국, 일본, 유구(琉球) 등으로 표류(漂流)하는 경우도 잦았으며[16], 반대로 중국, 일본, 유구인 등이 제주도로 표도(漂到)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음

■ 특히, 화교가 제주에 도래하기 전에도 중국의 소주, 광동, 산동, 상해 등지의 청국 상인들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해 제주에 표도한 기록이 있음

〈표 2-5〉 19C 중국인의 제주 표도 현황[17]

연도 및 표도지	지역, 출항지 및 인원	표도이유
1851년 3월 대정현	광동성 향산, 34인 (교역차만난 불란서인 포함)	실종자 수색차 출항하였다가 방향 잃고 도착
1852년 12월 대정현	강남성 소주부 통주 상해현 오송항 11인	상업활동 중 서북대풍으로 표도
1867년 4월 대정현	강남성 상해현 상해현 오송항 23인	상업활동 중 서북대풍으로 표도
1867년 7월 대정현 모슬포	산동성 등주부 황현 황현 용구항 24인(張國興 외)	상업활동을 위해 상해현에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해적 조우, 서북대풍으로 표도
1867년 10월 대정현	강남성 소주부 남통주 상해현 오송항 18인	산동으로 상업차 가는 중 서북대풍으로 표도
1882년 1월 대정현 화순포	절강성 영파부 영현(郢縣) 천포 50인(아라사인 동승)	일본에서 무역하여 귀국 중 대풍으로 표도

■ 이러한 제주인의 중국으로의 표류, 중국인의 제주로의 표도는 제주의 지리적 위치가 진나라의 서복 전설이래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지점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후 근대 화교와 현대 중국인들의 활발한 유입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6) 19세기 들어 1846년부터 1881년 사이에만 총 42건 130여명에 이르는 제주인의 해외 표류가 있었음. 강창룡외(1997년),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p 202

17) 자료: 강창룡외(1997년),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p 256-263

3-2. 제주화교의 효시

■ 제주화교의 존재가 공식적인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09년 조선총독부가 집계하여 발표한 전국 통계연보로서 1909년에 3호 5명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제주는 다른 개항도시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화교가 이주해 거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1909년은 공식적인 전국인구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해로서 그전부터 입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큼

3-3. 초기 화교의 구성

■ 1882년부터 시작된 초기 한국 이주 화교는 면포,마포, 견직물(비단) 판매 중심의 상인들이 주류를 차지했다는 점[18]에서 제주 초기 화교역시 내륙을 거쳐 유입된 소규모 포목상[19] 또는 포목을 중심으로 한 잡화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 면담자(許延慶)에 따르면 1900–1910년대에 목공, 석공 등 기술자들이 제주에 유입하였으므로 초기 제주화교 사회 구성원으로 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唐德雲:: 실명이 전하는 초창기 제주화교의 1인으로서 1909년 전후하여 제주에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직업은 목공으로 15세(1893년생으로 추정)에 제주로 유입

■ 종합하면 1900년대 초 소규모 포목상, 잡화상과 목공 등 기술자들이 내륙을 통해 제주에 유입되어 초기 제주화교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됨

3-4. 제주화교의 이주 배경

3-4-1. 개관

■ 전국화교와 동일한 배출요인과 유인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당시 제주가 갖는 독특한 유인요인이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주화교 역시 배출요인은 전국화교와 같은 맥락이며, 유인요인으로는 (1) 제주개발 수요 (2) 제주인구 증가에 따른 포목 등 수요 증가 및 새로운 사업기회 등장 (3) 선 이주 화교와의 네트워크 (4) 내륙에서의 경쟁압력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사업기지 개척시도 (5) 피난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음

18) 王恩美, 송승석 옮김, 2013, 동아시아 현대사 속의 한국화교, 학고재, 71쪽

19) 면담결과에 따르면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해방 후에도 제주의 경우 값비싼 비단이나 모시삼베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층이 그리 넓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포목상이 발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함

3-4-2. 주요 유인요인(full factor)

① 제주개발 수요

■ 일제가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사실상 식민지 수탈을 위한 통치 및 교육기구를 세우고 경제 침탈을 위한 토목 공사 등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근대식 건축 목공, 석공 등 관련 기술자의 수요가 증가한 것을 들 수 있음

–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일제는 을사늑약(1905)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전반을 간섭하는 가운데 황무지 개간권 확보, 독도의 강제침탈, 경부선 부설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식민지 수탈을 위한 개발을 시작함

② 제주인구 증가에 따른 포목 등 수요 증가 및 새로운 사업기회 등장

■ 제주인구는 을사늑약 이전인 1904년 86,189명에서 1907년 111,103명, 1920년에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임

– 이에 따라 포목 등 의류 및 잡화 수요 증가, 제주 화교사회의 성장에 따른 음식점 등 새로운 사업기회의 출현으로 내륙에서 이주 확대

〈표 2-6〉 일제 강점기 제주도의 인구 추이[20]

연도	인구
1904	86,189
1907	111,103
1910	126,469
1920	201,326
1925	205,478
1930	199,577
1935	199,063
1940	208,915
1942	224,208

■ 해방 후 1960년대 제주개발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로 이주하는 화교도 다수 존재

③ 선 이주 화교와의 네트워크

■ 이미 제주에 정착한 화교들과의 지연과 혈연 등 네트워크는 화교를 지속적으로 제주에 유입하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

20)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년도, 1904년 통계는 통감부, 제주도현황일반

④ 피난 등 요인

■ 1950년 한국전쟁 중 피난으로 내륙에서 제주로 이주, 제주의 자연과 풍광을 동경하여 이주하는 경우도 있음[21]

3-5. 제주화교의 유입경로

■ 개항기인 1882년-1910년 까지는 한국화교는 광동출신 중심의 남방화교가 주류를 차지했으나 1900년대 들어 산동성 출신이 점차 늘어나 1920년대 이후에는 압도적인 비중인 90% 이상을 차지하게 됨

■ 면담결과 제주화교 역시 대부분 산동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이주 초기에는 산동에서 인천을 통해 입국 후 연안해운으로 유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인천에서 육로(철도)를 통해 제주로 유입되는 경우와 만주 안동을 통해 내륙을 통해 이주해 오는 경로가 일반적

■ 주요 유입경로는 내륙교통이 취약했던 초기에는 주로 산동성 연태-인천-군산-목포-제주 등 개항도시를 통해 이어지는 해로가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임

- 1895년 일본 우선회사 소속 준하호가 인천-군산-목포-제주-좌수영-부산을 운행
- 1900-1910년대 제주 이주 화교의 후손들의 면담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

■ 철도가 부설된 이후에는 인천에서 내륙을 통해 목포나 부산을 경유하여 정기선으로 제주로 유입

- 경부선(1904년)과 호남선(1914년)이 핵심 경유수단이며, 중국 안동을 통해 입국할 경우 경의선과 다른 철도노선이 경유수단이 됨

■ 일제 강점기에는 목포, 부산 해방후에 부산이 화교들이 제주로 유입되는 주요 관문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전남-제주간은 개항 전에도 범선이 운행하였을 뿐 아니라 1900년-1904년 기선인 경보환과 경흥환이 인천-목포-제주를 운행하였고, 1911년 부터는 명령항로로서 공주환,해주환,통영환이 목포-제주를 월 9회 운항하였음

■ 목포-제주-부산 노선도 1911년부터 총독부 명령항로로서 운행되기 시작하여 부산을 통한 화교의 유입도 상정할 수 있음

- 목포-제주-부산 노선: 부산-마산-통영-여수-거문도-조천-산지-추자도-목포

21) 면담(왕복안)에 따르면 왕정춘은 산동성 내양(萊陽)에서 7명의 친구와 함께 생활하기 좋은 곳을 찾아 인천과 군산을 거쳐 1918년 제주로 이주하였는데 제주가 살기 좋다는 소문을 듣고 기대감을 갖고 왔다고 함

3-6. 제주화교 초기 형성 과정의 의의

- 제주화교가 처음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 1909년은 〈표 2-1〉과 같이 개항도시인 청진(1908),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신의주(1906), 내륙의 주요 도시인 대구(1905) 등과 비슷한 시기로서 지리적 원격성과 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화교이주가 생각보다 빠른 시기라고 평가됨
- 〈표 2-2〉가 보여 주듯이 제주는 1909년에 호남 최초로 화교가 도래한 목포와 영산강으로 통해 주요 내륙시장이었던 영산포 다음으로 전남에서 화교가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목포와 비교적 가까운 완도, 진도 등 같은 섬 지역에는 화교가 1명도 없는 상황임
- 이렇듯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리-교통 상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제주까지 와서 사업을 개척한 것은 초기 제주화교들이 갖는 강인한 개척정신과 상황적응 능력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7〉 1909년 전남의 화교인구 분포 [22]

(단위: 명)

연도	목포	광주	순천	여수	나주 (영산포)	영광	무안	보성	해남	강진	완도	진도	제주	전남
1909	69	5	0	4	13	4	0	0	0	0	0	0	5	102

22)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감

Ⅲ. 대한제국 및 일제강점기 제주화교의 활동

1. 인구통계 동향

1-1. 정착 및 성장기(1909~1930년): 증가세 지속

■ 포목판매 등 소규모 잡화상과 목공, 석공 기술자들 소수가 내륙을 거쳐 1909년 이전부터 제주에 처음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909년 3호 5명에서 1930년 90명 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 1914년–1915년 잠시 감소세로 돌아간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중 당시 연합국으로 참전했던 일본이 독일의 세력 하에 있던 산동성 청도(靑島)를 기습 점령함으로써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발생하였기 때문임[23]

■ 1910년 12만명 수준의 제주인구가 1920년대 이후 20만명을 돌파하여 소비수요가 증가 한데 이어 1926년 제주 산지항 개발로 인한 중국노동자의 유입이 본격화 됨에 따라 제주화교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며 1936년에는 최고 수준인 93명을 기록함

– 포목, 잡화 등 기존의 상업활동이 확대된 데다 중국음식점 개업이 늘어나고 기존의 목공 등 기술자외에 단순 노동자와 통조림 공장 노동자 등이 늘어나 화교인구 증가요인이 됨

1-2. 침체기(1931~1945년): 감소세로 전환

■ 인구 성장과정에서도 1927년, 1931년 두 차례 발생한 排華사건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다시 회복추세로 전환함

– 이는 제주에서의 배화운동이 내륙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끝났지만 전언 등을 통해 받은 제주화교들의 심리적 충격은 일시적 이지만 작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3) 김승, 2014, 일제강점기 부산화교의 존재형태와 사회정치적 동향, 지역과 역사 34호, p.219

■ 1937년 중일전쟁은 급성장하여 10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였던 제주화교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대폭 감소세로 전환하게 된 계기

– 적성국 국민의 지위가 됨으로써 피해를 우려한 제주화교들은 1937년 반 이상이 중국으로 철수하게 되고 이러한 침체상황은 태평양 전쟁 등 전시체제 강화로 해방 전까지 지속됨

– 상업활동의 부진과 일제의 군수기지화로 노동 수요가 많았던 북한 지역으로 화교이주 확대도 내륙화교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서 침체 요인의 하나로 보임

〈표 3–1〉 일제 강점기 제주화교 인구통계 동향[24]

(단위: 명)

연도	제주	증감(%)	전국	증감(%)
1909	5	—–	6568	—–
1910	5	0.00	11818	79.93
1911	5	0.00	11837	0.16
1912	8	60	15517	31.09
1913	14	75	16222	4.54
1914	10	–28.57	16884	4.08
1915	8	–20.00	15968	–5.43
1916	14	75.00	16904	5.86
1917	15	7.14	17967	6.29
1918	17	13.33	21894	21.86
1919	26	52.94	18588	–15.10
1920	28	7.69	23989	29.06
1921	25	–10.71	24695	2.94
1922	28	12.00	30826	24.83
1923	38	35.71	33654	9.17
1924	48	26.32	35661	5.96
1925	59	22.92	46196	29.54
1926	87	47.46	45291	–1.96
1927	71	–18.39	50056	10.52
1928	73	2.82	52054	3.99
1929	67	–8.22	56672	8.87
1930	90	34.33	67794	19.63
1931	70	–22.22	36778	–45.75
1932	60	–14.29	37732	2.59
1933	76	26.67	41266	9.37
1934	84	10.53	49334	19.55
1935	92	9.52	57639	16.83

24)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감, 1943년은 조선통계연감

연도	제주	증감(%)	전국	증감(%)
1936	93	1.09	63981	11.00
1937	46	–50.54	41909	–34.50
1938	53	15.22	48533	15.81
1939	45	–15.09	51014	5.11
1940	43	–4.44	63976	25.41
1941	44	2.33	73274	14.53
1942	48	9.09	82661	12.81
1943	32	–33.33	75776	–8.33

1–3. 제주 인구 중 비중과 지역분포

■ 제주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나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

– 1930년 기준 인구비중은 한국인: 99.36%, 일본인: 0.58%, 중국인: 0.045%

〈표 3–2〉 제주도 인구 중 화교의 비중 추이[25]

연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총인구
1904	85,983	206	NA	86,189
1907	110,646	457	NA	111,103
1910	126,028	434	5	126,469
1920	200,584	723	28	201,326
1925	204,314	1,105	59	205,478
1930	198,304	1,163	90	199,577
1935	197,543	1,425	92	199,063
1940	207,514	1,355	43	208,915
1943	223,207	1,545	32	224,784

25) 자료: 1904년 통계는 통감부 제주도현황일반, 1907–1940년은 조선총독부 통계연감, 1943년은 조선통계연감(남조선과도정부 편)

■ 1920년대 이후 화교는 제주 전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중심지였던 성내, 서귀포, 성산포 순으로 분포

〈표 3–3〉 제주도 화교의 지역별 분포(1926년)[26]

구분	호수(호)	인구(명)
제주성내	11	31
조천리	2	2
금녕리	1	2
서귀포	6	19
모슬포	2	5
성산포	3	7

– 제주화교의 전성기인 1930년에는 진출하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고루 확산

〈표 3–4〉 제주화교의 지역적 분포(1930년 10월 현재)[27]

지역	인구(명)
제주면	14
신우면(애월)	4
구우면(한림)	12
대정면	6
중면	1
좌면	1
우면 (서귀포)	35
서중면(남원)	5
동중면(표선)	2
정의면(성산포)	12
구좌면(구좌)	2
신좌면(조천)	1
추자면	0
계	95

26) 자료: 조선총독부(1929년), 생활상태조사(제주도)

27) 자료: 조선총독부(1932) 소화 5년 조선국세조사보고, 전남편 51–57쪽, ( )는 현재의 지역명

1–4. 전남 지역 내 제주화교의 비중

■ 일제강점기에 제주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소속으로 제주화교가 전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5년 까지 지속적인 확장세 유지

– 1935년에는 9.6%로서 목포,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화교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정착기인 1915년에 비해 비중이 7% 포인트 늘어났음

〈표 3–5〉 전남 주요 지역의 화교인구와 비중 추이[28]

(명, %)

구분	목포	광주	순천	여수	광산	나주	영광	장성	담양	보성	제주	계
1915	84	35	10	10	0	35	30	0	14	18	9	346
비중	24.28	10.12	2.89	2.89	0.00	10.12	8.67	0.00	4.05	5.20	2.60	100
1935	227	191	89	40	45	37	55	72	34	59	92	958
비중	23.70	19.94	9.29	4.18	4.70	3.86	5.74	7.52	3.55	6.16	9.60	100

1–5. 정주화(定住化) 경향

■ 1930년대 초까지 제주화교의 구성에 있어서 남자 대비 여자 비율은 전국 수준을 상회하여 단신 출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반면 1935년 이후부터는 남녀 비율이 전국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초기 제주화교는 단신으로 출가하여 계절적으로 중국을 왕복하는 경우가 전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30년대 이후에는 배우자의 입도 또는 현지 결혼을 통해 정주성이 늘어난 데 기인함

– 아울러, 타지보다 일제강점기 후반에 정주비율이 늘어난 것은 단신출가자들을 중심으로 본국귀환이 이루어졌고, 생업기반을 제주에 둔 기혼자 화교들의 정착성이 컸기 때문임

〈표 3–6〉 제주 화교의 남녀 비율 추이[29]

연도	남	녀	계	제주 남녀대비	전국 남녀대비
1920	27	1	28	27:1	8.2:1
1925	55	4	59	13.75:1	7.1:1
1930	75	15	90	5:1	4.7:1
1935	69	23	92	3:1	3.9:1
1940	27	16	48	1.68:1	2.8:1

28)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29)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각년도

2. 정착 및 발전기(1905~1930년)의 경제 · 사회적 활동

2-1. 경제적 활동

2-1-1. 직업분포

■ 이 시기에는 포목판매 등 소규모 잡화상과 호떡집 등 음식업, 목공, 석공 기술자, 통조림 공장 직원 등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제주화교의 직업 분포는 상업이 압도적이며, 노동자를 포함한 공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화교의 직업 중 중요한 부분이었던 농어업 부문은 한명도 없는 독특한 모습

〈표 3-7〉 제주화교의 직업 분포(1925년)[30]

직업	호수	인구	비중(%)
공업	3	7	11.8
상업	16	52	88.1

■ 〈표 3-8〉을 보면 1923년의 경우 전국화교의 평균적 직업상황은 중국요리와 호떡을 포함한 음식업이 24.2%로 가장 높고, 단순 노동, 농업, 잡화, 포목업 순

– 화교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에는 음식업 비중이 높고, 목포, 부산, 군산 등 주변 농촌지역을 배후에 둔 도시들은 포목점의 비중이 높으며, 대도시를 주변에 둔 인천, 북부의 중심지 평양은 농업의 비중이 높음

〈표 3-8〉 전국 주요 도시 화교직업 분포 비교(1923년)[31]

(단위: 戶, %)

구분	서울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합계	비율(%)
포목점	13	11	29	27	9	19	7	11	18	7	155	5.45
잡화	84	38	47	–	4	–	15	40	12	23	287	10.10
중국 음식	159	35	7	12	6	23	19	13	17	17	328	11.54
호떡 등	193	35	16	3	26	11	45	–	–	19	360	12.67

30) 자료: 濟州道誌 상권(1982), 420쪽

31) 자료: 조선총독부,1924,『朝鮮に 於ける 支那人』의 지역별 내용을 재구성

구분	서울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합계	비율 (%)
이발	31	8	1	1	–	–	3	6	2	5	60	2.11
농업	19	135	4	14	20	15	114	6	42	22	437	15.38
단순 노동	25	12	–	–	9	4	68	337	13	14	484	17.04
목공	58	4	–	–	1	3	6	12	–	6	97	3.41
석공	49	4	–	–	3	–	3	–	5	–	70	2.46
기타	200	162	3	–	24	–	13	55	40	19	562	19.78
합계	831	444	107	57	102	75	293	480	149	132	2840	100
포목상 비중(%)	1.56	2.47	27.10	47.36	8.82	25.33	2.38	2.29	12.08	5.30	5.45	–

2–1–2. 상업활동

① 포목업 및 잡화상

■ 당시 전국화교의 핵심 업종이었던 상업은 포목업과 음식업이 주종을 이루었음
– 먼저 포목상들이 들어왔고, 거래활동에 따른 인적교류가 활발해지자 음식업이 성행하게 됨

■ 면포, 견직물, 마포 등을 판매했던 포목업은 대부분 인천의 도매상이 중국 상해로부터 수입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형태였으며, 초기에는 면직물이 주력상품이었으나 일본의 면직공장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일본제품으로 대체되었고, 1925년까지 견직물(비단)과 마포가 주종이 되었음

■ 조선총독부는 1924년 중국산 견직물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100%의 관세부과를 시행함에 따라 1925년 이후 중국산 견직물 수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화교상인들도 일본으로부터의 견직물 수입을 수입하는 처지로 전락하였으나 마포는 일제의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 및 일본의 생산구조 취약으로[32] 중국산 마직물을 쉽게 구축하기는 어려웠음

■ 1882년부터 시작된 초기 한국 도래 화교는 면포, 마포, 견직물(비단) 판매 중심의 상인들이 주류를 차지했다는 점[33]에서 제주 초기 화교역시 내륙을 거쳐 유입된 소규모 포목행상 또는 포목을 중심으로 한 잡화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 포목업이 성행했던 목포나 부산 지역 화교상점의 행상들이 진출하였거나 잡화상에 포목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임

32) 이정희, 2018, 한반도 화교사, 서울: 동아시아, 109쪽
33) 王恩美, 송승석 옮김, 2013, 동아시아 현대사 속의 한국화교, 학고재, 71쪽

■ 현재 기록상 확인된 최초의 상점은 영순흥(永順興)(1915년 설립)으로 제주면 삼도리에서 포목을 취급하는 잡화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34]

– 당시 잡화상의 취급품목은 잡화, 견면포, 직물류, 설탕 등이었음

■ 1920년대 이후 제주인구가 늘어나 소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포목 상점이 활동을 하게 됨

– 목포의 신성호(新盛號) 지점(支店)이 1920년대(1925년 이전 설립 추정)에 성내에 지점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견직물, 주단, 마포, 면포 등을 판매35)

– 신성호는 목포에 본점을 둔 호남 유수의 포목 도매상으로 연 매출이 1928년 기준 50만원 수준이었으며, 제주지점은 성내에 위치하고 담벽교(譚璧橋)가 대표였음

– 매일신보(1926. 5.27)에 따르면 1926년 5월 25일 제주 성읍 내에서 유례없는 대화재가 일어나 화교 상점 2개가 전소 되었는데, 화교 주인인 陳世好는 2만원, 王振武는 7천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피해금액으로 볼 때 당시 지방 상점 중 포목업(잡화상 겸업)이 아니고서는 그런 규모의 사업은 거의 없었음

– 따라서 1920년 중반 경에는 제주에도 포목업체들과 잡화상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내륙의 도매상이 지점을 설치할 정도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사진 3–1〉 신성호 지점 광고[36]



■ 면담(王福安,許延慶) 결과에 따르면 1920년대에는 서귀포와 성산포 등에도 포목점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 성내에서 제주 각 지역으로 포목점이 확산

34) 조선총독부 관보, 1915년 4월 1일
35) 每日申報, 1926.7.18
36) 조선신문, 1926.7.17.

– 산동성 황현 출신의 허경환은 1925년에 제주로 이주하여 포목점 직원으로 근무, 제주도 유입 동기가 성산포에서 이미 포목업을 하던 외가친척의 권유였음

– 이후 허경환은 독립하여 서귀포 솔동산에 잡화점인 천생상(天生祥)을 개업하여 활동

② 음식업

■ 포목, 잡화 등 상업활동과 기술노동자의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음식점이 나타나게 됨

■ 조선총독부는 중국음식을 파는 상점을 규모와 취급 품목에 따라 중국요리점, 중국음식점, 호떡집의 세 종류로 구분[37]

– 호떡집은 가장 규모가 작고 호떡, 계란빵, 참깨빵, 공갈빵 등을 팔았고, 주요 고객은 초기에는 중국인 노동자들이었으나 점차 조선인 노동자들로도 확대

– 중국음식점은 호떡집보다 규모가 더 컸으며 중국식 포자(包子), 만두, 교자(餃子) 등을 판매하였고 우동 등과 같은 음식도 취급

– 중국요리점은 음식점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컸으며 주로 고급 중화요리와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대체로 2층 이상의 큰 건물을 사용하였고, 축하모임이나 결혼식 피로연 등 각종 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상담(商談) 등 이루어지는 요정으로서 역할을 하며 기생을 두고 술과 요리를 팔기도 하였음[38]

■ 1920년 이후에는 가히 중국요리점의 전성시대로서 규모도 대형화되었고 고객도 화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확대

■ 제주에서 중국음식점이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국요리점은 1920년대 제주 城內 大路洞에 위치하고 盧壽亭(산동성 모평현 출신)이 주인이었던 상호 불명의 식당임[39]

– 면담에 따르면 1910년대부터 서귀포와 김녕리 등에 호떡집 등 작은 규모의 중국음식점이 시작된 것으로 보임

2-1-3. 목공과 석공, 단순노동 기타

■ 화교 목공과 석공은 근대식 적벽돌 건물공사와 주택 건설에 있어 국내보다 기술력이 우수한 데 비해 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시공사들이 선호함

■ 목공과 석공 기술자들은 식민지 통치기구인 濟州島廳 등 건물건립과 제주도립병원, 사회간접자본 개발 수요에 따라 유입된 것으로 보임

37) 조선총독부, 앞의 책, 62-63 쪽. 중국 음식업에 대한 전국적인 특징은 "이정희, 2017, 「조선화교의 중화요리점 연구—1880년대~192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14집, 한국사회사학회"를 참조

38) 양세영, 2018, 전게자료, p 109

39) 중외일보, 1929.8.3

– 면담자들에 따르면 제주 중앙성당(1930년), 제주읍사무소(나중 제주시청, 1930년), 제주 북국민학교 등도 화교가 시공 또는 보수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

■ 1926년 제주 산지항 개발로 인한 중국노동자의 유입과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화교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근면성으로 발주자로부터 선호를 받음

– 〈표 3–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목공,석공, 단순노동 모두 화교의 임금수준이 한국과 일본 노동자에 비해 낮은데 비해 공사에 대한 성실성과 헌신에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40]

〈표 3–9〉 1929년 국내 민족별 노동자 임금 비교(圓)[41]

직종	민족별	임금
목공	한국	2.18
	일본	3.64
	화교	1.94
석공	한국	2.25
	일본	3.90
	화교	2.30
공장노동자	한국	1.00
	일본	2.32
	화교	1.04
단순노동(인부)	한국	0.91
	일본	1.72
	화교	0.90

2–2. 사회적 활동

2–2–1. 적관(籍貫)과 교육

■ 국내화교가 처음 이주한 1882년부터 1900년까지는 출신지역이 다양하였음

– 개항지인 인천, 부산은 남방출신의 화교상인이 주도하였고, 한성은 산동성 출신이 중심[42]

■ 그러나 1900년 의화단 사건이후 산동성 화교의 이주가 급증하여 출신지가 산동성으로 단일화되어 갔으며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90%에 근접하게 됨

40) 이정희, 2018,전게서, p 596

41) 자료: 조영윤, 1920–1930년대 빈민 실업문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과 중국인 노동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p 189

42) 강진아, 2011, 『동순태호』, 경북대학출판부, 66쪽. 국내화교는 출신지역에 따라 크게 북방(北幫), 광방(廣幫), 남방(南幫)으로 불리우는 동향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음. 북방은 산동과 하북출신, 광동성은 원래 남방이었으나 규모가 커서 독자적으로 광방이라 함. 남방은 강소, 절강, 호남, 상해 등 강남지역 출신 화교를 지칭

■ 아직 정확한 문헌 기록은 없으나 제주화교는 면담결과 대부분 산동성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동성 중에서도 오늘날의 연태시(煙台市)가 다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위해(威海)시 출신으로 구성

– 연태: 모평현, 황현, 래양현 등, 위해: 영성현 등

■ 단신출가자가 많아 정주화율이 낮은 화교로서는 인구가 일정규모에 이르지 못하면 교육기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일제강점기에는 화교학교가 세워지지 못하고 교육이 필요한 소수의 청소년들은 한성, 군산, 부산 등으로 유학을 간 것으로 파악됨

2–2–2. 화교단체

■ 국내 최초의 화교단체는 1884년 한성에서 설립된 중화회관(中華會館)이나 1900년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화상회"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운영됨

■ 중화상회의 기능은 교민 복리사업, 화교 호적관리(출생 신고 등), 거주실태 파악, 화교학교 운영, 상업분쟁의 조정, 화교상업 활동의 편의 증진, 영사관의 행정사항 전달 창구 등 다양함[43]

■ 제주화교의 공식단체로는 濟州中華商會가 있었으며 설립일은 문헌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인접지역인 목포, 광주, 장성 등의 설립연도를 고려하면 1927년–1928년경으로 추정됨

〈표 3–10〉 화교단체 성립시기[44]

명칭	성립시기
인천중화상무총회	1910.7
군산중화상회	1927.9.8
목포중화상회	1927.4.7
광주중화상회	1926.12.28
장성중화상회	1928.5.27

43) 華僑志編纂委員會, 1958, 『韓國華僑志』, 臺北: 華僑志編纂委員會, 118쪽

44) 자료: 王恩美, 송승석, 전게서, p 123

2-2-3. 1927년 배화(排華)사건

■ 1920년 후반부터 화교에 대한 배척의식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재만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박해소식이며 내부적으로는 1920년대 이후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노동자들과 국내 노동자간 노동시장에서의 갈등에 기인함[45]

■ 1927년 배화사건은 만주당국에 의한 재만 조선인에 대한 박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한 사건

– 처음에는 전국 각지에서 재만동포옹호동맹(在滿同胞擁護同盟)이 만들어져 재만동포의 권익을 수호하고 만주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 운동이 중심이었으나 나중에는 일부지역에서 흥분한 주민들에 의해 폭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남

■ 처음 배화운동이 발화된 곳은 이리로서 1927년 12월 7일 오전 재만동포옹호동맹 결성대회가 열렸고 이후 해산했으나 저녁부터 중국인 상점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은 군산, 전주, 서천, 김제 등지로 확산되었고 인천까지 확대

– 일제는 배화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기미를 보이자 적극적으로 단속을 시작하여 재만동포옹호동맹의 결성과 집회를 금지시키고 시위의 대표자를 검속

– 1927년 배화사건은 전북 중심으로 충남과 전남 일부, 그리고 인천지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전국적으로는 확산되지 않음

■ 제주는 1927년 배화사건으로 인한 사건이나 피해상황은 없었으며, 이는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의 결과였음

– 재만동포의 핍박 소식은 제주에도 전달되어 12월 초 제주청년회, 제주 기자단, 제주기독교회, 산지청년회, 제주부인회, 제주 여자청년회, 제주학우회, 제주보교동창회, 제주음사(吟社)가 연합하여 재만동포옹호동맹 발기대회를 제주유치원에서 개최하고 향후 대책의 기본방침과 실행방침을 결의하였음[46]

– 기본방침: (중국 및 도내 중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은 절대로 피하고 온건한 수단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

– 실행방침: ①조선총독부에 진정할 것 ②재경 총동맹과 제휴하여 중국 관계당국인 북경정부 경성영사관, 봉천 및 길림성에 항의할 것 ③재제(在濟) 중국인의 노력을 촉진 시킬 것 ④ 재만 조선인 구축대책강구회에 격려문을 발송할 것 ⑤물질적으로 동정할 것 ⑥ 옹호강연회를 개최할 것

45) 박정현, 2014, 「1927년 재만동포옹호동맹의 결성과 화교배척사건」, 한국중국학회, 『中國學報』 第 69輯, p 105-106
46) 濟州道誌 상권(1982), p. 399

3. 침체기(1931~1945년)의 경제 · 사회적 변동과 영향

3-1. 1931년 만보산 사건과 영향

3-1-1. 사건의 경과

■ 1931년 7월 2일 만주 장춘에 있는 만보산에서 농수로를 둘러싸고 중국인 농민과 조선인 이주 농민 간에 충돌로 발생한 만보산 사건은 일부 언론이 다수의 조선인 사상자가 나온 것처럼 과장 보도함으로 많은 화교사상자를 발생시킨 국제적인 사건으로서 화교배척의 흐름이 광풍처럼 한반도를 휩쓸었음

– 전국 주요 도시로 폭동이 확산된 가운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1927년 배화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국제연맹의 위탁을 받아 조사한 결과가 담긴 리턴(Lytton)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127명, 부상 393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평양은 사망자가 94명을 넘었음

■ 1927년 배화사건에는 사건이 없었으나,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도 1931년 만보산 사건 때는 서귀포의 화교 음식점이 습격당하는 등 2개의 사건이 발생하였음

–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상자가 없었고 매우 경미한 피해로 났다는 점이 특징임

3-1-2. 영향

■ 만보산 사건 이후 제주 화교사회의 인구는 중국으로 철수하는 화교로 인해 1930년 90명에서 1931년 70명으로 감소하였음

■ 만보산 사건으로 인한 배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제주화교 인구의 감소세는 전국 화교인구의 평균 감소율인 45.7%을 하회하는 22.2% 수준이나, 적지 않은 화교가 이탈하는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국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인구 감소율을 보임

■ 사건의 영향으로 1932년 6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서 1936년에는 해방 전 가장 많은 인구규모인 93명까지 늘어남

〈표 3-11〉 만보산 사건과 중일전쟁 이후의 인구변화[47]

(단위: 명)

구분	서울	인천	군산	목포	부산	평양	청진	신의주	제주	전국
1930	5,987	2,427	638	305	504	1,995	1,348	7,487	90	67,794
1931	3,420	1,469	580	198	329	655	903	4,733	70	36,778
증감 (%)	-42.8	-39.4	-9.0	-35.0	-34.7	-67.1	-33.0	-36.7	-22.2	-45.7
1936	8,300	3,265	571	239	1,080	1,833	1,011	6,439	93	63,981
1937	2,114	805	194	74	102	871	873	5,748	46	41,909
증감 (%)	-74.5	-75.3	-66.0	-69.0	-90.5	-52.4	-13.6	-10.7	-50.5	-34.5

3-2. 1937년 중일전쟁과 전시체제의 영향

3-2-1. 사건의 경과

■ 만보산 사건 이후 점차 귀국했던 일부 화교들이 되돌아오면서 다시 화교가 늘어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제주화교 사회에 더 큰 충격을 미치고 경제사회적 기반을 뿌리채 흔든 사건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임

■ 1937년 7월 7일 노구교(蘆溝橋) 사건을 시작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중일전쟁은 국내 화교를 적성국민으로 만들었고, 대중(對中)무역이 중단됨으로서 만보산 사건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고 이어진 태평양 전쟁과 그로 인한 전시체제 돌입은 전국화교와 마찬가지로 제주화교 사회에 침체기를 가져다 줌

3-2-2. 영향

■ 1937년 중일전쟁은 상당수 제주 화교의 본국 철수를 가져와 만보산 사건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 · 사회적 기반을 흔들었고 나아가 화교사회의 구성과 활동 자체를 변화시키는 충격을 가했음

■ 중일전쟁이후 제주화교 인구변화는 〈표 3-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37년에 전년대비 50.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국 귀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임[48]

– 만보산 사건과는 달리 전국화교 평균 감소율보다 높은 수준의 인구 감소를 기록하여 중일전쟁이 제주화교에게 미친 타격이 훨씬 큰 것을 보여줌

47)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년호

48) 每日申報, 1938.1.5

– 상업 활동이 주류를 이룬 부산, 목포에 비해서는 낮으나 전쟁군수 기지로서 공업 활동이 주축을 이룬 청진, 신의주 등 북부도시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두드러짐

■ 1938년 일시 인구가 약간 늘어나 회복조짐을 보였으나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해방직전까지 30명 수준으로 하락함

■ 면담(許延慶) 결과, 이 시기 제주화교의 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일부 소규모 잡화상과 군수 통조림공장(한림 옹포리 竹中통조림공장) 노동자로서의 활동에 제한된 것으로 보임

■ 중일전쟁 이어 발생한 태평양전쟁과 이로 인한 전시통제 체제는 그나마 명맥을 이어온 제주화교의 경제 활동을 마비시킬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침

– 모든 물자를 군수산업에 집중, 밀가루 배급제 시행, 가격의 인위적 통제로 상업이윤 대폭 감소, 세금부담 가중 등[49]

■ 일제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인 1937년 12월 점령지에 괴뢰정부인 중화민국임시정부(북경정부)를 수립함에 따라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화교들을 대표하는 화교단체들도 일제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고 1938년에는 친일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로 변화를 강요당하게 됨

■ 이에 따라 제주중화상회는 1938년 濟州中華新民會로 개칭하게 되고 南京國民政府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도록 강요

49) 양필승, 이정희, 2004, 전게서, p 53

Ⅳ. 해방 후 제주화교의 활동

1. 인구통계 동향

■ 해방이후 제주화교에 대한 통계는 기록이 없어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나 해방 전인 1943년 32명을 바닥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임

– 특히,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내륙의 피난화교가 증가하여 일시적으로나마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부만 남고 대부분 복귀

– 이에 따라 1954년에는 135명으로 해방 전의 최고 수준인 93명을 넘어섰으나 1960년 초반까지 정체

– 60년대 초부터 제주개발이 가속화 되고 관광 발전으로 타 지역 화교 유입이 늘어나고 제주 화교의 출산 증가 등 자연적 확대 요인으로 70년대 초반에는 800명을 넘는 인구 전성기를 보임

–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화교에 대한 경제규제 강화의 영향과 주 업종인 음식업의 경쟁격화(국내인 운영 중국음식점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따라 상당수 화교들이 미국과 대만, 그리고 서울 등 대도시로 재이주함으로서 80년대에는 200명 선으로 감소

–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되고 관광 및 자본유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2010년대 이후 다시 이주해 오는 화교가 늘어나 2018년 현재 415명을 기록

■ 제주화교는 타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재이주 인원이 적었고, 최근 증가세 지속은 이례적인 현상임

– 일부 고소득자 중심으로 미국,대만 등으로 재이주 하였으나, 대부분 제주화교는 영세하여 다른 지역보다 이주여력이 적었음

– 또한, 제주의 좋은 자연환경 때문에 화교들의 정주의도가 높은 편임

– 관광발전 등 지역개발 확대로 타 지역 화교가 꾸준히 유입증가

〈표 4-1〉 해방 후 제주화교 인구 변화 추이(명)[50]

구분	1943	1954	1957	1962	1972	2002	2018
제주	32	135	141	141	801	280	415

■ 제주화교의 전국 내 위치를 보면 1954년의 경우 남한 화교의 64.71%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4군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운데 제주에 거주하는 화교는 135명으로 거제도(140명)보다 적고 목포(133명)와 비슷

– 1957년 추세도 비슷하며, 부산과 거제와 같이 피난 화교증가로 일시적인 확대를 경험한 도시들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제주는 1953년 무렵에 이미 복귀가 이루어져 큰 변화가 없었음

〈표 4-2〉 1950년대 전국 주요도시 화교인구 변화[51]

지역	1954년(명)	1957년(명)
서울	4,368	5,284
인천	3,098	3,870
부산	5,032	3,244
군산	630	584
목포	133	134
거제	140	–
제주	135	141
전국	22,090	22,734

■ 제주화교의 해방이후 인구 추이를 전남의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목포는 경제규모 축소로 화교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광주는 대도시로서 주변 지역으로부터 화교가 유입되어 2000년대 초반까지 인구가 늘었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주는 최근 증가세로 돌아섬

– 최근 전반적으로 지역 화교인구 감소하는 이유는 귀화자가 늘어나는 데다 1-2세대 화교들이 사거하기 때문임

50) 자료: 1943년 조선총독부 통계 연감, 1954,1957년은 楊昭金, 孫玉梅, 조선화교사, 1962, 1972년은 동아일보 기사, 2002년과 2018년은 출입국관리 사무소 통계

51) 자료: 楊昭金, 孫玉梅, 조선화교사, p335-338

〈표 4–3〉 해방 이후 전남지역과 제주 화교의 인구 변화 추이(명)[52]

지역	1943	1948	1954	1957	1962	1972	2002	2018
목포	105	164	133	134	130	–	24	16
광주	93	317	410	539	–	–	626	289
제주	32	–	135	141	141	801	280	415
전국	75,776	17,443	22,090	22,734	23,575	32,989	22,699	20,433

–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의 제주 화교 인구는 260~290명 선에서 정체

〈표 4–4〉 제주 화교 인구 추이(1999~2008년)[53]

(단위: 명)

	남	여	합계
1999	157	135	292
2000	149	135	284
2001	145	132	277
2002	144	136	280
2003	138	130	268
2004	137	133	270
2005	136	129	265
2006	135	124	259
2007	140	125	265
2008	138	126	264

52) 자료: 1943년 조선총독부 통계 연감, 1954,1957년은 楊昭金, 孫玉梅, 조선화교사, 1962, 1972년은 동아일보 기사, 2002년이후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통계

53) 자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08년 5월 10일

2. 해방 후 화교 사회 형성

■ 1945년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제주 화교 사회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함

– 무엇보다 내륙지역의 피난화교가 늘어나 일제 치하에서 100명 미만이었던 화교 인구는 1954년 당시 135명으로 증가했으며, 화교의 경제활동도 점차 자리를 잡아 갔음

– 특히, 1950년 해상호를 통해 81명의 중국인이 피난하여 제주로 들어오면서 인구의 증가는 물론이고 해방후 화교 사회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침

– 기존의 화교들이 주로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경제 이주였다면, 양락산 일가는 국공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난민으로 성격상 차이가 있었음

– 양낙산 일가는 대다수 중국음식업 부문에서 활동하고 화교소학 건립에 기여

■ 제주 화교사회는 1992년을 기점으로 다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음

– 1992년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하여 중국 본토에서 새롭게 중국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화교들과 성격이 다른 화교(신화교)들이 한국 사회로 편입되었기 때문임

■ 특히,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되고 관광개발 및 자본유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화교의 유입이 증가되고 구화교도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조선족의 진출도 활발하여, 구화교, 신화교, 조선족 중국인 등 넓은 의미의 중국계통 집단 간 융합은 물론 제주 지역주민과의 조화 등 질 높은 다문화 사회 형성이 과제임

– 2018년 9월 30일 현재 제주에는 12,580명의 중국계통(문화권) 인구가 존재

〈표 4–5〉 2018년 제주 중국계통 집단 인구[54]

구분	외국인 계	중국인	조선족	구화교 (대만)	중국계통
계	24,414	1,557	10,608	415	12,580
남	13,801	815	4,625	211	5,651
여	10,613	742	5,983	204	6,929

54) 자료: 출입국외국인청

3. 경제활동

3-1. 직업분포

■ 해방 전에는 포목업, 잡화점, 목공과 석공, 공장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으나 중일전쟁과 전시체제로 철수하거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음

■ 1945년 해방 후에는 제주도에서 첫 번째 중화요리집인 東一館을 개업한 이래로 대부분의 화교들이 주로 중화요리를 본업으로 삼기 시작했으며 이는 면담(왕복안) 결과, 양낙산 일가가 제주로 들어오면서 더욱 심화

■ 1954년과 1957년 제주 화교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음식업이 주류를 차지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잡화점임

〈표 4-6〉 1954년과 1957년 제주 화교의 직업 분포[55]

직업	음식	공업	잡화	농업	의약	행상	공교	기타
1954	40	0	6	0	0	0	4	84
1957	75	0	20	12	0	6	4	24

■ 1957년 이후 제주 화교의 직업 분포는 공식자료가 없어 특정할 없으나 면담 결과에 따르면 음식업이 지속적으로 주류는 차지하는 가운데 특히, 관광 서비스 업 분야에 진출하여 종사하는 화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임

3-2. 상업활동: 음식업 중심

■ 제주 화교의 상업 활동의 주요 업종은 중화요리 등 음식점이었음

– 중국음식점은 덕성원, 중흥루, 한양정, 요동반점, 미화천, 대관원, 구풍반점, 유일반점, 만춘반점, 아주반점, 송죽원 등이 있고, 잡화점으로 지성행, 제과점으로 영춘원 등이 있었음

55) 楊昭金, 孫玉梅, 앞의 책, 338쪽

〈표 4-7〉 제주지역 화교의 상호 변동과 경제활동[56]

상호명	위치	대표자	개설시기	상호 변동
덕성원	서귀포	왕정춘(1905~1970)	1951년	東一館-덕성원
지성행(잡화상)		왕영민(1925~2014)	1953년	원래동으로 변경, 1980년 미국이민
중흥루	제주시 우체국 앞	손비윤	1953년	1980년대 미국이민
운임춘	성산포	이달림	1940년	후손이 횟집 운영
한식집	관덕정 부근	장자미(1902~1970)	1940년	아들 張景都는 1958-1962년까지 화교소학교 교사재직
잡화상	중앙로 성당 앞	왕세향	1945년	1980년대 미국이민
한양정	산지항	허경환(1905~1962) 여문헌(1915~1958)	1951년	국수공장 경영(제주시 동문시장)-한림중화요리점-명신원(1975년)-향원반점(1977년)-대만반점(1981년)-매화반점(1985년)
요동반점	제주시 중앙로	양낙산(1896~1961)	1952년	유일반점-요동루-송죽원
미화천	제주은행 본점 부근	정개룡(1907~1970)	1952년	
영춘원(제과점)	산지천	여순탕	1957년	성산포로 이주하여 빵집 개업하였으나 실패하고 1975년 사망. 아들은 귀화하여 개인택시 운영
대관원	모슬포	왕서인(1927~)	1957년	한국인에게 임대주고 중국 옌타이로 이주
구풍반점	제주시 칠성로	정여례	1957년	용담동에서 남경반점(1970년)을 운영하다 1980년대 중국에서 사망
	제주시 산지천	주금장, 주금동	1957년	미국 이민
유일반점	제주시 시청 부근	양수명(1920~2004)	1957년	개업한 이래로 같은 장소에서 아들 양병운이 영업중.
만춘반점	시민회관 남쪽	왕복산(1940~1981)	1957년	
아주반점	제주시 칠성로	양승진	1960년	미국 이민.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음.
송죽원	제주시 칠성로	양갱규(1940~1983)	1970년	동일 상호로 재개업
		담영경(1920~1980)		양낙산 부인의 남동생으로 양씨 사업을 도왔음.

■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신화교가 들어오면서 특히 조선족을 중심으로 중국음식점을 개업하는 일이 빈번해졌으며, 한국인에게 매각되어 운영 중인 식당도 증가

56) 문미라의 석사논문 『근현대 화교의 제주도 정착과정과 사회적 위상』 34쪽. 재인용. 문미라는 허연경, 양수강, 왕복안 등의 구술자료(2008년 10월 15일)와 1957년 학교설립 성금자 명단을 토대로 「제주지역 화교의 상호변동과 경제활동」(1957년)을 작성했다. 본고의 표는 기존의 표를 약간 수정하여 재인용한 것이다.

– 2019년 현재 노화교가 직접 경영하는 중국음식점은 다음과 같음.

* 제주시: 유일반점(1957년), 영성반점(1960년, 시청–연동), 임성반점(1960년), 북경반점(1965년), 개원(1975년), 대관원(1980년), 아서원(1985년, 화교협회 회장을 지낸 주인은 대만으로 이주), 홍보석(1988년), 덕성원(2007년), 국빈대반점( )
* 서귀포, 중문: 덕성원(1951년 서귀포, 중문)
* 한림: 보영반점(1965년)

■ 이렇듯 제주 화교의 중요 상업활동은 중화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요식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일부 관광업이나 자영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57]

4. 사회활동

4–1. 화교단체

■ 한국전쟁이 끝난 후 화교조직에도 큰 변화가 발생함

– 「한국화교자치연합총회」(이하 자치연합총회)가 성립되어 제1대 회장에 張子泉이 취임하였고 「자치연합총회」는 45개의 자치구를 두었으며, 조직 장정은 전체 5장 20조였음

– 이외에도 청년, 부녀, 교사 등이 각기 자체 조직을 설립했음

– 제주도에도 자치연합총회의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1950년대부터 1960년까지 자치구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1960년 이후 제주화교협회로 존재해 오고 있음

– 제주 화교단체를 이끈 주요 지도자들은 곡군성, 여문헌, 장자미, 왕정춘, 왕연경, 허연경, 왕영민, 양낙산, 양수성, 여춘당, 범세진, 송문룡 등임

4–2. 화교교육: 화교소학교

4–2–1. 제주화교 소학교 설립

■ 제주도에 화교 학교는 소학교가 유일하며 1951년 쌍십절(10월 10일)에 개교

– 개교 당시 상황과 학교건립 내력, 제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모금한 성금 내역은 현재 제주화교소학교에 남아있는 현판에 기록되어 있음

57) 2018년 제주화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요식업 60%, 관광업 10%, 자영업 20%, 한의원 1%, 기타 9%이다.

■ 목판 현판자료 내용(1957년 작성, 전문)

– 우리 교포(화교)가 제주에 와서 거주한 지 30여 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교포는 2,30여 명에 불과하고 단체도 없었다. 중화민국 38년(1949년) 우리나라 대사(주한중화민국대사)가 한국에 주재하면서 제주에 중화상회(中華商會)라는 이름이 생겨났다.[58] 한국에 6.25사변이 발발하여 제주로 피난하는 화교들이 비교적 많아졌다. 중화민국 40년(1951년) 大使의 명을 받들어 자치구(自治區)가 성립되었다. 제령諸領(諸僑領, 여러 화교 단체의 우두머리, 어른)들은 교육이야말로 건국(健國)의 근본인데 아동들이 배울 기회를 잃고 있음은 실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다. 여러 화교 어른들은 비록 경제적으로 피폐하지만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성의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어찌되었든 간에 먹고 입는 것을 절약하여 방도를 구하여 임시학교를 마련했다. 민국 40년(1951년) 쌍십절(10월 10일) 소학교가 탄생했다. 기금도 없고 고정된 학교 건물도 없어 해마다 한 두 번씩 옮겨 다녔으며, 중간에 그만두어야 하는 곳도 있었다. 연합회(한국화교자치연합총회) 곡군성(曲君聲) 부감(夫監)이 제주 자치구장(自治區長)에 선출되면서 모금을 통해 학교를 세우자고 적극 제창하였다. 모금 허락을 받은 후 자치구장이 그가 손수 용기를 내어 동분서주한 결과 각지의 교육에 열의가 있는 이들이 주머니돈을 털어 70만원이라는 거액이 마련되었다. 거액의 성금은 건물을 사는 데 60만원을 썼으며 나머지 돈은 교사를 수선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현지 교포사회에서 교육에 뜻이 있는 이들이 찬조하여 장인들을 모으고 건축자재를 준비하여 한 달여 만에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인식이 부족한 이들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옳은 뜻에 찬동하여 종적을 감추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준공검사를 하는 날 여러 교포들이 담소를 나누면서 기꺼이 돈을 내어 풍금 한 대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는 훌륭한 교사에 조금 부족한 점을 메꾸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후 아동들이 아름다움이 가득한 낙원에서 안심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두 어진 분(仁者)들에게 공을 돌려야 할 것이다. 지난 것을 알고 미래의 것에 밝아 학교가 무궁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니, 이제 기금을 내거나 힘을 써주신 분들의 아름다운 이름(芳名)이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왼쪽에 기록하였다.

– 교육을 열애하는 분들의 아름다운 이름은 왼쪽과 같다.

서울시: 曲金山 선생 성금 오만원정 외 45명 이하 성명 생략.

인천시: 共和春 성금 이만원정 외 1명 이하 성명 생략

목포시: 區商會 성금 일만육천오백원정

부산시: 梁明初 선생 성금 오만원정 외 22명 이하 성명 생략

제주시:

양낙산 선생 성금 십만원정, 한양정 성금 오만원정, 지성행 성금 삼만원정,

문생행 성금 삼만원정, 손비윤 선생 성금 삼만원정, 운임춘 선생 성금 이만원정

왕정춘 선생 성금 이만원정, 왕복산 선생 성금 일만삼천오백원정

장자미 선생 성금 일만이천원정, 영춘원 성금 일만원정, 동명호 성금 구천원정,

유신원 성금 일만원정, 동순원 성금 칠천오백원정, 왕세향 선생 성금 육천원정

양갱규 선생 성금 사천오백원정, 양수명 선생 성금 육천원정, 대관원 성금 육천원정

58)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제주중화상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50년대 당시 화교 구성원과 일제 강점기 화교 사회와의 역사적 단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정개룡 선생 성금 삼천원정, 담영경 선생 성금 이천원정, 주금장 선생 성금 이천원정
주금동 선생 성금 육천원정, 추여례 선생 성금 삼천원정, 방보채 선생 성금 육천원정.
학교 기금 성금 오만사천원정, 양승진 선생 성금 육천원정.
이하 방명록의 성함은 99명이며, 모금액은 1,212,500원정.
중화민국 46년(서기 1957년) 1월 4일

- 1957년 쌀 한 가마니(80Kg)의 가격은 1,591원이며, 2018년에는 111.5배인 177,458원으로 당시 모금액 1,212,500원은 1957년 당시 쌀 762가마를 살 수 있는 금액이므로 2019년 현재 가치로 1억3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59)
- 제주화교들은 1951년 임시학교를 시작으로 화교를 위한 교육을 시작했으나 당시 임시학교는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개설한 학교인지라 학생 숫자도 10명 이하에 불과했으며, 시설 역시 심히 열악했음
- 최초의 임시학교는 제주시 중앙성당 앞에 자리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일반 가정집 마당을 빌어 텐트를 치고 학생들을 가르쳤음
- 이후 3년간 4차례나 자리를 옮길 정도였으니 목판자료에서 "기금도 없고 고정된 학교 건물도 없어 해마다 한 두 번씩 옮겨 다녔으며, 중간에 그만두어야 하는 곳도 있었다."라는 구절이 이를 말해줌.
- 현재 제주화교소학교가 자리한 제주시 삼도 2동 909번지는 목판자료에서 볼 수 있다시피 1957년 제주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인천, 목포, 부산 등 전국 화교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금하여 마련한 것임.
- 학교는 120평 규모이며, 교사 한 채(2층짜리)와 화장실, 그리고 약간의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음.
- 학교 토지와 건물 명의는 처음에 한국인으로 했다가 이후 화교 회장 명의로 바꾸었으며, 1995년부터 사단법인(사단법인 제주화교소학교)이 되었고, 1998년 「외국인 토지소유제한」이 해제되면서 10여 명의 이사들이 공동명의로 등기한 상태.
- 1990년대 초기 유치원을 포함하여 재학생이 4,50명에 이르렀으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학생이 있었음.
- 교과과정은 대만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 정했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 없이 비슷하게 설계되었고 교육이 시행되었음
  - 대만국내와 동일한 커리큘럼
  - 주당 1시간의 한국어 교육이 있었으나 중국어 수업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편이었음

59) http://ecos.bok.or.kr/jsp/use/monetaryvalue/MonetaryValue.jsp?lm=5&nowNo=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

■ 1995년경부터 화교는 줄어들고 한국인이 늘기 시작하여 학생 총인원이 30명이면 4,5명만 화교일 정도였으나 이후 점차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심각한 경영난과 더불어 학생 수급에 문제가 심각했음.

■ 1999년 '임의학교'에서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아직 학력인정은 받지 못한 상태였음.

– 2000년경에는 화교소학교에 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는데, 중국인은 1명이고 8명이 모두 한국인이었음.

– 당시 교사는 두 명으로 한 명은 대학을 졸업했으나 다른 한 명은 고졸

– 교사의 급료 수준도 열악하여(월 85만원 수준) 봉사정신이 없으면 계속 할 수 없었음

– 건강보험이나 퇴직금 등 복리후생제도도 일체 없었고, 교장의 경우는 아예 급료가 없는 명예직으로, 이러한 상황은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임

■ 학교 경영은 주로 학생들이 1년에 4번 내는 학비로 충당했으며, 중화민국 정부에서 1년에 한 번 2천 달러씩 지원해주었지만, 2000년 중화민국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이 총통이 된 이후로 지원이 끊겼음

■ 이외에 삼성 그룹으로부터 40만원 및 TV와 PC 등 기자재를 지원받기도 하고, 신제주와 대만 JC에서 연 100만원 지원을 받았지만 이것만으로 학교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음.

■ 학생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차량을 운영할 수 없고, 식당이 없으며, 교사가 부족하고, 시설 또한 낙후되었기 때문임

–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화교 1,2세대가 민족성을 중시한 것에 반해 현재 젊은 화교들은 이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은 이유도 있으며, 또한 제주교육청에서 화교학교에 한국학생 입학을 불허한 것도 주요한 이유

4–2–2. 화교 학교의 교사 모수분慕秀芬의 진술

– 1954년 9월 29일 부산에서 출생했다. 부친은 모길송慕吉松(1904?년생–75,6세에 사망)으로 산동영성시榮成市 출신이다. 모친은 전패영錢佩英(1909?–1954년)으로 상하이 출신이며, 외삼촌과 이모가 상하이에 살았다. 부산에 있을 당시 부친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는데, 굳이 식당을 한 이유는 적어도 가족들이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부친은 자식들에게 중국인이니 중국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부산에 살면서 화교소학교(초량과 서면에 있었다), 화교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1977년 타이완으로 가서 중흥中興 대학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했다. 동생은 보인대학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결혼으로 인해 제주에 들어왔으며, 92년에 다시 들어와 화교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슬하에 딸 1명이 있으며, 현재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교사로서 오랫동안 화교소학교에 봉직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제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도 행복을 느끼

고 있다.[60]

– 지금도 가끔씩 학교 입학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특히 신화교들의 요청도 종종 있다. 학교가 존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시설 부족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시 개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학생들이 없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학교에 나와 교사校舍를 청소하는 등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재 제주 화교소학교는 교사만 있을 뿐 폐교된 상태임

– 물론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존재하며, 현재 교장은 북경반점을 경영하고 있는 양덕의가 맡고 있음

– 하지만 다시 개교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요원한 일로 간주됨

■ 화교소학교의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제주사회는 다양한 국적 또는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어 다문화교육의 활성화는 당연하고 마땅한 제주 기성세대의 임무이자 권리임

– 제주 화교소학교를 정비하여 제주의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放課後 또는 주말학교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학생 부족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면 화교소학교를 제주 노화교의 회관으로 재정비하여 제주 화교의 역사관, 자료실,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교육청과 논의 과정을 거쳐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부지를 다른 부지와 대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완전히 새로 건물을 올리는 방안도 있을 것임

– 현재의 건물을 유지한 채로 리모델링만 하는 방안도 있으나 어떻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현 건물과 부지를 보다 이상적인 형태로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

60) 면담 일자: 7월 3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장소: 화교학교.

5. 화교와 제주사회의 관계

5-1. 제주화교의 지역사회 공헌

5-1-1. 지역인프라 개발 및 건축물 시공-보수 등 참여

■ 일제 강점기부터 제주화교는 산지항 개발, 북초등학교와 제주도립병원 건립과 보수공사에 참여하였으며, 해방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잔류 목공과 석공들이 건축물 보수 공사 등에 관여

■ 화교 개인들도 상점 앞을 지나는 도로의 부설은 자비를 들여 공사하는데 후원

5-1-2. 한라문화제 참여로 국제도시 제주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

■ 제주도에서 1962년에 시작하여 1965년 제4회부터 명칭을 바꾸어 매년 성대하게 개최된 한라문화제에서 화교 특유의 구경거리를 만들어 제주시에서 거리행사를 벌이기도 하였음

- 당시 가장 특이하고 인기가 많았던 거리행렬 가운데 하나가 화교들이 연출한 중국 민속 연희였음.
- 제주화교는 1962년부터 1984년까지 한라문화제에 참여, 중요한 참여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 1976년 제 15회 한라문화제: 민속놀이 "군영회(群英會)" 시연
  - * 1984년 제 23회 한라문화제: 목발놀이(가오차오高脚)로 가장행렬에 참여
- 화교가 보여주는 거리행렬이 당시 외국의 문화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서 당시 제주민들에게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제주민들 또한 그들의 연희를 통해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할 수 있었음.
- 제주가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

5-1-3. 제주 방문 또는 피난 중국인들에 대한 통역 봉사

■ 제주 화교들은 한국전쟁 시 중공군 포로를 비롯해 각종 국제행사시 중국(대만)측 참가자, 태풍 등으로 제주로 피항한 중국선박 등에 대한 통역활동을 지원함

5-1-4. 중국음식문화 소개

■ 제주화교를 통해 제주사회에 중화요리가 처음 등장하여 외식문화를 열었고 중국과의 문화적 유대를 갖게 만들었음

– 중국인들은 어려서부터 면 뽑는 법을 배운다고 할 정도로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들도 음식조리에 나름의 솜씨를 지니고 있음

–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데 서양요리나 일본요리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비싸지 않아 일반 서민들도 먹기에 부담이 없음

– 중화요리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역만리로 떠나 새롭게 이주한 지역에서 화교들이 생업으로 선택하기에 적합했음.

■ 한국 화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주로 산동에서 넘어온 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중화요리 역시 산동 음식을 포함한 북방요리를 위주로 하고 있음

– 중국 북방요리는 밥 대신 면이 위주이며, 돼지고기와 양고기를 주로 사용하고 소고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 산동사람들은 콩으로 만든 황장(黃醬)이나 밀가루로 만든 첨면장(甜麵醬)을 조미료로 사용하는데, 특히 대파를 첨면장에 찍어먹는 것을 좋아함

– 산동출신 화교들은 이를 응용하여 면에 춘장(春醬)을 부어먹는 짜장면(炸醬麵, 장을 기름에 튀겨 면에 부어먹는 음식)을 만들어 팔았음.

■ 해방이후 제주 최초의 중화요리집은 산동 라이양(萊陽) 출신 화교 왕정춘王亭春이 개업한 東一館으로 주로 짜장면과 볶음밥, 그리고 하얀 짬뽕(炒碼麵, 당시 제주 사람들은 이를 우동으로 착각) 등을 팔았음

– 하얀 짬뽕은 해물과 고기에 다양한 야채를 넣어 기름에 볶은 후 육수를 넣고 재차 끓여 만드는 국수류인데, 중국 요리 가운데 초마면(炒碼麵)이 변형된 것

– 매운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식성에 맞추어 고추기름을 넣어 붉은 짬뽕[61]으로 변했음.

■ 제주에 화교가 경영하는 중화요리집이 늘어난 것은 해상호가 들어온 후이며 이후 지금까지 제주의 유명한 중화요리집은 주로 화교들이 운영하는 곳임

5-1-5. 제주의 해외창구 역할

■ 해방 이후 1973년 일본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제주의 외국인은 화교가 거의 유일하였음

■ 또한 1992년 중국과 수교하기 전까지 제주사람들은 화교를 통해 중국을 이해했고, 화교를 통해 중국인을 알았음.

■ 18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실시되기 전까지 특히 1960,70년대에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하

61) 일본에서는 19세기말에 나가사키(長崎)의 중식당 시카이로(四海樓)의 창업자 천핑순(陳平順)이 탕루시멘(湯肉絲麵)을 변형시킨 맵지 않은 국수이다. 당시 푸젠성[福建省] 유학생들이 가난해서 식사를 거르는 것을 불쌍히 여긴 그가 이들에게 국수를 대접하였고, 그들의 사투리로 인사를 '챵호(식사하셨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일본인들이 '짬뽕'이라 잘못 알아들어서 아예 국수 이름이 짬뽕이 되었다고 한다.

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

■ 이런 상황에서 화교는 국적이 중화민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여행이 비교적 수월하여 중화민국은 물론이고 일본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음

– 1970년대에 일본이 고속 성장으로 노동력이 부족하자 화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본(특히 京阪神地域, 오사카 · 교토 · 고베)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 당시 제주 화교중 일부는 일본에서 번 돈으로 중국 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우가 있었음

–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화교들은 일본 등지에서 외화를 벌어 제주에서 음식점을 경영할 수 있는 자본을 구할 수 있었음

■ 당시 화교들은 제주 일반인들 가운데 유일한 해외로 뚫린 창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음

– 화교들은 해외, 특히 중화민국이나 일본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역할을 할 수 있었음

– 화교들은 중화민국에서 한약을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약이 풍족할 리 없는 제주에 필요한 약재였음

5–1–6. 4 · 3사건시 제주주민에 대한 도움의 손길

■ 제주는 1947년 참혹하고 원통한 4.3사건을 겪었으나, 제주 화교들의 피해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중화민국 국적의 화교들이 국기인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를 게양하면 경찰이나 군대 토벌대는 물론이고 그 반대편에서도 무단침입을 금하는 일종의 치외법권 대우를 받았기 때문임

■ 특히 반공을 국기(國基)로 삼았던 한국에서 중화민국은 중공과 대치중인 우방 중의 우방으로 '빨갱이' 토벌과 거리가 멀었고, 또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제주화교 중 일부는 억울한 피난민들을 자택에 숨겨주고 보호해 줌

– "내가 그 당시 5–6세 때인데, 우리 집 마룻바닥에 낯선 사람들이 웅크리고 숨어 있었어. 나중에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그 때가 4.3사건으로 사람들을 많이 숨겨줬다고 하더라고.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우리 집 마룻바닥에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은 똑똑히 기억이 나지."[62]

■ 이렇듯 제주 화교는 비록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일제치하의 억압과 4.3의 악몽, 그리고 한국동란의 힘든 나날을 함께 보냈음

– 화교는 바로 우리의 이웃이자 함께 사는 주민으로 제주사회를 만들어온 동반자로서 제주 화교가 제주사회에 공헌한 가장 큰 일은 바로 묵묵히 제주와 함께 하면서 우리 곁에 있었다는 점으로 보임

62) 면담(허연경), 2008년 9월 18일. 문미라, 『근현대 화교의 제주도 정착과정과 사회적 위상』, 43쪽,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9년, 재인용. 신재경의 논문(2000년)에도 이와 유사한 발언 내용이 나온다.

5-2. 화교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과 차별

5-2-1. 외국인 토지소유제한

■ 한국 정부는 외국인, 특히 화교에 불이익이 가는 정책을 실시하여 한국 화교들이 차별의식을 느끼게 만들었음

– 그 첫 번째가 1961년 박정희 정권 하에 제정된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완전히 금지되자 외국인, 특히 화교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상점을 헐값에 매도하거나 친한 한국인 명의로 등기하기도 함

– 명의를 빌린 한국인의 배신으로 재산을 빼앗기거나 소유권 분쟁에 휩싸이는 일도 잦았음.[63]

– 이로 인해 또한 회사를 설립하면서 한국인의 명의로 했다가 갈등이 생겨 회사를 포기하는 일도 있었음[64]

■ 이후 1968년 7월 「외국인 토지소유법」이 개정되면서 제5조 제2항에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거용으로 660㎡ 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전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정함

– 이후 1970년에 제정된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은 주거용 주택 한 채(650㎡, 200평)와 상점 한 곳(170㎡, 50평)만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음

■ 「토지소유법」에 따른 한국 화교의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음

– 이는 제주화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것이 1957년에 설립한 제주화교소학교의 명의를 화교가 아닌 한국인의 이름을 빌린 예임

– 양낙산이 묻혀 있는 양씨 집안의 공동묘지에 관한 사례도 특할 만함

"예전에는 화교가 돈이 있어도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가족묘지를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 한국인 명의를 빌려서 샀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도 우리 사느라 바빠서 그 땅의 명의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주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땅이 제주시 소유인데 가족묘를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명의를 빌렸던 한국인이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 자식한테 상속하고, 그 사람은 또 밀린 세금 대신 우리 땅을 세금으로 낸 거예요. 우린 그 땅에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가족묘가 형성되어 있으니까.…증거는 있는데 나라에서 법으로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65]

– 가족묘지를 한국인 명의로 산 것은 바로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나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이 그 땅을 돌려주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바람에 결국 이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음

– 「외국인 토지소유법」은 1998년에 가서야 비로소 폐지되었음

63) 장수현, 『한국 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1-30쪽 참조.

64) 박현옥, 박정동, 「한국 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IDI 연구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 2003년.

65) 양병운 구술, 2008년 11월 10일. 문미란, 앞의 책 38쪽 재인용.

5-2-2. 창고봉쇄령

■ 1950년 「창고 봉쇄령」은 외국인이 항구 부두의 창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었는데, 당연히 대외 무역을 하는 화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음

– 제주의 경우는 대규모 화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나 일부 포목상이 문을 닫고 업종 변경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임[66]

5-2-3. 화폐개혁

■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3년과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2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된 화폐 개혁도 한국 화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음[67]

– 화교들은 특성상 현금 소지가 많았던 까닭에 더욱 화폐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경제적인 피해가 막심했음

5-2-4. 중과세제도

■ 1970년대 초반 경제국방 건설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중과세 제도도 화교들에게 불리한 정책이었음

– 당시 제도에 따르면,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동일 업종의 상인에 비해 오랫동안 한 곳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만 했음.[68]

– 중화요리를 전문으로 하여 오랫동안 한 곳에서 장사를 해왔던 화교의 경우 불이익이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음

66) 포목상을 하던 허경환이 성산포에서 운영하던 포목점을 접고, 서귀포 솔동산에서 중화요리집을 개업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었음

67) 해방 이후 화폐개혁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이 설립되고 그 해 7월 한국은행권을 발행하면서 기존의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금지하고 한국은행권으로 등가교환한 것이다. 두 번째는 1953년으로 한국전쟁 중 남발된 통화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실시된 화폐개혁이다. 이에 따라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변경(100원→1환)하고 환표시의 은행권 및 주화만을 법화로 인정하는 등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1953년 2월 17일부터 다섯 종류의 새로운 한국은행권이 발행되면서 우리나라 화폐의 완전한 독자성이 확보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 번째는 1962년의 화폐개혁이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했으나 1961년 수립된 군사정부가 외국원조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자립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와 긴급금융조치를 단행하였다. 긴급통화조치로 인해 환圜 표시의 화폐를 원圓 표시로 변경(10환→1원)하고 환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 또한 구권과 구권으로 표시된 각종 지급수단을 6월 17일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토록 하고 후속조치로 금융기관의 신규예금은 물론 기존예금에 대해서도 봉쇄계정에 동결토록 하였다.

68) 김일권, 앞의 책, 193쪽.

5-2-5. 쌀 소비 제한과 인정과세

■ 1973년 3월부터 중국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중국 음식 가격 인상 제한, 쌀 소비 절약을 위한 중국음식점의 밥 판매 금지, 음식점에 대한 인정 과세 실시 등 배타적인 조치가 내려짐[69]

– 이는 제주 화교의 경우도 큰 타격이었음

"3년 정도 지났나 정부에서 분식을 장려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만 밥을 먹게 했는데, 밀가루를 쪄서 밥처럼 만들어 볶음밥을 만들었다."라는 면담(손립연)결과 를 통해 당시 배타적 조치로 인해 제한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음

5-2-6. 출입국 규제

■ 1950년 한국전쟁으로 세계가 냉전시대로 돌입하여 중국이 타이완의 중화민국과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나뉘면서 한국 화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적을 강요당하게 되었음

■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은 화교 사회의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음

– 특히 남한 화교들은 대부분 고향이 산동성, 하북성이었기 때문에 공산화된 중국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고, 결국 타이완의 중화민국을 새로운 조국으로 삼았음

■ 제주 화교들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고향에 처자식을 두고 온 일부 화교들의 경우 귀국이 난망한 상황에서 현지에서 한국인 또는 화교와 재혼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었음

■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1949년 11월 17일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외국인의 출입국을 규제하는 법령을 공포하였음

– 이로 인해 더 이상의 중국인 이민자가 발생하지 않아 화교의 숫자는 자연증가를 제외하고 더 이상 늘지 않았음

5-2-7. 국적 취득과 체류 자격

■ 1948년 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은 속인주의 따른 부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음

– 외국인은 설사 한국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오직 귀화를 통해서만 한국인이 될 수 있으며, 어머니가 한국인일지라도 아버지가 외국인일 경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음

– 화교의 경우도 한국인 어머니를 둔 2,3세는 여전히 외국인일 뿐이었음

69) 김일권, 위의 책, 193쪽.

– 또한 한국 남자와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가 결혼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한국 여자와 외국인이 결혼할 경우는 일정한 거주 기간이 지난 후에 법무부 장관을 허락을 받아야만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

■ 한국 정부는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의 귀화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

– 한국 화교가 귀화를 하려면 반드시 재산증명서와 귀화인 추천서 필요

– 추천서는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금융, 국영기업체 부장급 이상의 간부, 교수, 교장, 교감 중에서 2명 이상의 것을 받아야만 했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했음

– 다행히 1997년 법무부에서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귀화 추천인을 2명 이상에서 1명으로 줄이고, 3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낮추는 등 심사여건을 완화시키고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바꾸면서 문턱을 낮추었음

■ 한국 정부가 1949년 11월 17일 공포한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화교는 1년마다 거주허가를 연장하도록 규정(1963년 3년으로 연장했다)

– 화교들은 출국할 때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는데, 새로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신고의 의무는 사라진 대신 재입국허가를 받아야만 했음

– 또한 한국 국적이 아닌 화교는 장기체류가 가능한 F–2비자가 주어졌으며, 외국인 등록을 한 후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만 했음

– 이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화교들에게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음

■ 다행히 1995년 F–2비자의 체류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2002년 영주권을 부여하는 F–5 비자 제도가 신설되면서 화교를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출입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됐음

■ 한성화교협회의 화교관련법령 안내문 – 출입국관리법에서 화교에 관한 내용

– 한국정부가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화교 포함)의 거류에 관한 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 4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정식으로 대통령령 제17579호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수정령」을 발표했고 이중에 한국화교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F2 장기거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 만 5년 이상 거주한 자 및 해당자의 20세미만의 자녀, 그리고 합법적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F5 영주권을 부여한다.

2. F5 영주권소유자에 13단위의 숫자를 외국인 등록증번호로서 부여하고, 전의 등록증 및 번호는 실효 된다.

3. F1 및 F2의 거류자격의 취득조건도 대폭 완화된다.(예로: 국외에서 친인척방문사증 또는 친인척의존생활사증으로 입국한자는 F1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국민 또는 F5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배우자 및 난민으로 인정된 자, 그리고 기타거류자격으로 한국에 만7년 이상 거주하며 주거지 확실한 자 는 규정에 따라 F2거류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 위 법령을 의거 한국법무부는 2002년 4월 27일 법무부 제517호 공고로 「출입국관리실행규칙 부분수정령」을 공고했고 이중에 한국화교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거류기한: F5는 영주권; F2 일차 3년이다.

2. F5의 신청비용: 체류자격변경은 6만원이다.

3. F1 및 F2의 체류기한이 만료 후 추가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전에는 5일) 30일 이상 초과하려면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F2 소지자가 F5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F2의 거류기한 그대로이다.

5. 위 내용은 공포한 2002년4월27일부터 실시한다.[70]

5-3. 사회, 정치적 차별

■ 다른 나라의 국적을 지니고 있는 화교는 외국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 정치적 활동에 제한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선거활동에 간여할 수 없음

–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의 개념 정의를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22조 제2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

– 심지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함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외국인의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이 이 모든 것을 포괄함.

■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국가와 자국민의 이익과 보호를 위한 것이나 이미 국제화된 사회에서 자국민 보호는 쌍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자국 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적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마땅함

■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함.[71]

– 이에 따라 영주권을 획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만 19세 이상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으며,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

– 당시 영주 자격을 가지고 투표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전체 6,579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6,516명이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구화교.[72]

■ 지방 참정권은 획득했으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권은 여전히 제하되고 있음

– 제주 화교는 "도지사는 뽑을 수 있는데 그보다 선거인이 제한적인 국회의원을 뽑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입장임

70) 한성화교협회, http://www.craskhc.com/htm/sub0302.htm 화교관련법령 참조.

71) 김일권, 위의 책, 203쪽. 김일권에 따르면, 이는 재외 한인의 거주국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논의된 것으로 특히 재일 한인들이 일본 정부에게 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를 지지했으나 일본 정부는 한국내 거주하는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들의 법적 지위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절한 바 있다.

72) 이정희, 앞의 책, 207쪽.

■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는 정책도 존재함

–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외국인은 장애인 복지지원에서 배제되었으며, 노인들의 경우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화교는 포함되지 않으며,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할 수 있지만 화교는 여기에서도 제외

– 아동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제주 화교들은 평생 제주에 살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임

6. 제주 신화교의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요약)

– 인식 설문조사표와 결과통계(부록)

6–1. 조사목적

■ 최근 신화교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제주화교 역사 및 문화유산 발굴에 대한 연구"의 해방후 화교 활동의 핵심내용으로 활용하고, 신화교의 의식과 행동을 이해하여 제주 중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반영

6–2. 조사경과

■ 조사기간 : 2019. 7월 초 – 2019. 10월 말

■ 표본 : 제주에 거주하는 신화교 350명

– 제주 녹지 영리병원 사무직원, 제주 드림타워 중국건축 직원, 제주신라 · 롯데 면세점 직원, 제주대학교 상무공자학원 교사 및 교수들, 화인화교연합회 회원들, 제주글로벌센터 이주민들, 제주지역 유학생 등

■ 회수 : 350부 중 200부 회수, 유효 응답은 173부(회수율: 57.1%)

6-3. 응답자 특성

■ 성별 : 남녀 비율은 64(37%) : 109(63%)로 나타나서 여성이 다수

■ 연령별 : 20~40대가 152명으로 전체의 87.9%로 차지, 다음이 40대

■ 거주지역 분포 : 제주 시내 및 제주시 읍면지역이 151명으로 전체의 87.3%, 다음이 서귀포
-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시내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학력별 :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은 92명으로 전체의 53.2%로 차지하고 있어서 학력은 높은 편, 다음이 고졸 ,중졸 순임

■ 국적별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은 83.2%, 대한민국의 국적은 16.8%
- 대한민국 국적자는 귀화자임

■ 가족 인원수 : 3명~4명이 110명으로 63.6%로 차지하고 있어서 작은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직업별 : 비교적 전문직(건축사, 재무회계, 엔지니어, 통역사 등)과 회사원(계약직, 사무직, 항공사, 노동자 등)이 많은 편이나 다양함. 무직이나 무응답이 높은 비중인 33%로 차지한 것은 가정주부일 가능성이 큼

6-4. 조사결과

6-4-1. 정체성

■ 응답자의 정체성은 중국인이라는 관념이 높았고,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지만 정체성은 아직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중국인 82%, 한국인 12%

6-4-2. 제주 이주 목적

■ 사업, 학업, 관광 순임

6-4-3. 한국인과의 관계

■ 매우 원만하다와 대체로 원만하다는 답이 84.9%로 아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新화교 · 화인은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비교적 있다고 볼 수 있음

6-4-4. 한국인과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 이유

■ 서로 문화교류가 기회가 적기 때문, 한국이 중국인을 차별대우하기 때문, 서로의 민족감정이 다르기 때문 순으로 나타나 상호소통의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6-4-5. 결혼관

■ 화교와 한국인 및 기타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 매우 찬성하다는 답과 대체로 찬성하다는 답이 71.7%로 나타나 新화인 · 화교가 개방적인 결혼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알 수 있음

6-4-6.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

■ 대체로 높다는 답과 그렇지 않다는 답은 거의 비슷한 30%의 수준이며, 오히려 매우 높다는 답은 9.8%로 낮아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新화인 · 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한국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자신의 능력과 교육, 신화교간의 협력 순으로 나타남
- 新화인 · 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신화교사회의 단결과 상호협력의 기회 부족, 능력 및 교육과 준비가 부족, 신화교에 대한 차별 순으로 나타남

6-4-7. 한국의 신화교 정책에 대한 평가

■ 한국의 新화인 · 화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45.1%로 나타나 모르거나 관심없다는 응답을 하회, 새로운 정책제시와 홍보가 필요함

6-4-8. 중국정부의 신화교에 대한 관심

■ 중국 정부는 한국 新화교에 대해 별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 모르겠다는 답이 60% 가까이 되어 중국 정부가 新화인 · 화교에 대해 관심이 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6-4-9. 한국 계속거주 이유

■ 한국에 대한 호감, 가족관계, 경제적 원인 순으로 나타남

6-4-10. 귀화여부

■ 한국 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이 69.4%로 젊을 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장차 귀국할 계획인 것으로 보임. 귀화의사는 22% 정도임

– 귀화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중국 사람이므로 반드시 중국 국적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아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원인이고, 어차피 떠날 계획, 귀화절차 복잡 순으로 나타남

– 귀화를 하겠다는 이유는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살 계획, 사업상 불가피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자녀들이 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과 무응답이 불과 11%이고, 찬성과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응답은 82%로 절대 우세를 보여 新화인 · 화교는 자녀들의 결정에 대해 직접 간섭하지는 않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임

6-4-11. 자녀의 배우자

■ 자녀가 (만약 미혼이면 본인이) 결혼을 한다면 선호하는 민족으로는 대륙인이 52%, 한국인은 16.8% , 구화교는 7.5%로 대만인(1.2%)보다 높았음

6-4-12. 新화교와 舊화교라는 호칭에 대한 생각

■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가 59%로 대부분 응답자가 관심이 없거나 아직 이 명칭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으로 보임

– 이치에 맞다는 응답도 24.3%이며 다른 명칭을 원하는 사람은 4.6%

6-4-13. 신화교와 다문화 가정

■ 별로 관심이 없다, 화교도 다문화가정이다 순으로 응답하여 다문화가정이라는데 부정적인 인식은 약한 것으로 보임

6-4-14. 식생활

■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똑같이 먹는다는 응답이 50.9%로서 한국음식보다 중국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는 응답을 넘어서 비교적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Ⅴ. 제주화교의 인물과 문화유산 실태

1. 제주화교 대표적 인물

1-1. 王씨 일가

■ 제주 화교 왕씨 일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王亭春은 산동 라이양(萊陽) 출신으로 1918년 중국을 떠나 친구 7명과 함께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갔다가 군산을 지나 1920년 제주도로 들어왔다. 처음 인천에 도착했을 때 눈에 보이는 조선인들이 너나할 것 없이 흰색 옷을 입고 있어 "인천 지역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매일 상喪이 나는가?"라고 걱정했다고 한다. 살기 좋다는 소문에 제주도로 건너 왔으나 당시 제주의 삶도 열악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제주에서 일본인 栗靜子와 결혼하고 한림 돼지고기 통조림 공장에서 근무했다.

■ 1945년 해방 후 제주도에서 첫 번째 중화요리집인 東一館을 개업하여 짜장면과 볶음밥, 그리고 하얀 짬뽕(炒碼麵) 등을 팔았다. 제주시에서 살다가 1949년 서귀포로 이주하여 중국 빵과 만두를 팔다가 1951년 덕성원을 개업했다. 현재 자리로 이주한 것은 2006년이다.

■ 왕정춘은 슬하에 4명의 아들을 두었다. 장남은 王福安, 아래로 王成安(작고), 王德安(작고), 王德山(일본에서 20여 년 생활하다 제주로 돌아옴) 등 4형제가 있다. 왕복안은 3남 2녀를 두었으며 현재 현업에서 은퇴했다. 장남 玉海는 덕성원 서귀포 본점, 玉光은 덕성원 중문점, 玉林은 덕성원 아라점, 삼양점을 경영하고 있으며, 玉美, 玉玲 자매는 한국인과 혼인하고 음식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왕복안의 동생 왕덕산은 일본에 밀항하여 벌목장에서 20여 년 동안 일했으며,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사람들을 만나면 잘 대해주어 귀국 후에도 일본에 있을 때 도움을 주었다고 인사하러 오는 이들도 있었다.

■ 서귀포에서 살고 있을 당시 제주 4.3을 겪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고, 오히려 제주사람들을 숨겨준 적이 있다.

■ 장남 왕복안은 산업정보대(현 제주국제대) 조리과에서 강의를 했으며, 라이온스 클럽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초기 중국에서 관리들이 왔을 때 통역을 맡기도 했다. 왕정춘 역시 양낙

산 일가가 처음 제주에 왔을 때 화교 회장으로 통역을 담당했다. 왕복안의 자녀들은 모두 고등학교까지 화교학교를 나왔고 제주대학교에 입학했다. 자녀들은 모두 한국인과 결혼하여 손자와 손녀가 11명이며, 그 외 조카들까지 합하면 50여 명이 된다. 향후 왕씨 일가 입도 100주년 기념회를 계획 중이다.[73]

1-2. 許씨 일가

- 제주시 거주하는 화교 허연경(許延慶)은 1946년 제주에서 태어난 화교 2세이다. 제주도 화교 소학교의 교장으로 2001년 2월까지 재직했다.
- 허연경의 아버지 허경환(鏡寰)씨는 1906년 중국 산동반도에서 태어났고, 결혼한 후 단신으로 1925년경 한국 제주도 동쪽, 성산포에 와서 친척의 도움으로 옷감 장사를 시작했다. 해방 전에는 2~3년마다 고향을 방문했으며, 1936년 부인(허연경씨의 어머니)을 데리고 인천을 경유하여 제주로 들어왔다.
- 허경환은 성산포에서 서귀포 솔동산으로 이주하여 잡화상 천생상(天生祥)을 운영했는데, 취급 품목은 비단, 포목, 고무신, 낚시용품 등이었다. 당시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다. 그러나 화교 허씨 집에 청천백일기를 올려놓자 어느 쪽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걸 알고 도망을 못간 사람들은 허씨의 집으로 피신해 목숨을 구했고, 반대편이 떠난 뒤 허씨 일가에 감사의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한다. 몇 사람을 구했는지는 어려서 알 수 없지만, 집 마루 밑이 사람들로 가득 찬 적도 있었다니 대단한 숫자임에 틀림없다.
- 6 · 25 사변이 일어나면서 제주도 모슬포에 육군 훈련소가 설치됐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허씨 일가는 모슬포로 옮겨 문화식당(文化食堂)을 운영했다. 전쟁이 끝나고 제주시로 옮겨 한양정(漢楊亭)을 중국인 여문헌(呂文憲)과 공동으로 경영했다.
- 동업자 呂文憲은 중국에 본처가 있었지만 한국에 온 뒤 재혼했다. 부인은 아이짱이라고 부르는 일본인이었다. 일본인 아이짱은 남편 여문헌씨가 사망한 후 1966 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 부친 허경환은 1962년 허연경씨가 부산 화교 중학교 1학년 때 사망하고 허연경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17세), 18세에 약혼, 19세에 결혼했으며, 20세에 장남이 태어났다.
- 허씨는 슬하에 3남을 두었는데, 장남(1968년생)은 현재 대만에서 초등학교 교사, 둘째 아들(71년생)은 미국에서 IT 관련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막내(74년생)는 서울에서 관광업

73) 왕복안 구술, 2019년 7월 3일, 장소: 덕성원 서귀포 본점.

에 종사하고 있다.

- 당시 화교는 돈이 있어도 부동산 구입은 불가능했다. 한국사람 집을 빌어 중국음식 장사가 잘되면 주인이 집세를 올려달라는 등 시비의 연속이었다. 당시 화교들은 충분한 경영자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때는 한국사람도 은행에서 자금 대출 받기가 어려운 시기였다.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화교는 당연히 은행과 거리가 멀었다. 자본이 조금 있는 이들은 같은 화교와 동업을 했으며, 자본이 없는 화교는 3, 40명의 화교로부터 각기 10만원정도 장사 밑천을 빌려 자본을 융통했다. 장사를 하여 매달 10만원씩 갚아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서로 협력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다(이를 請會라 함).

- 허씨는 부친이 남긴 돈으로 중국인 동업자와 함께 우동을 만들어 팔았고, 제주에서 해삼을 사들여 삶아 건조한 후에 육지(한국)로 출하하기도 했으며, 오일장에서 유채씨, 콩 등을 사들여 육지에 출하하는 일을 1973년까지 했다.

- 1973년 6월에 일본으로 갔다. 당시 한국인의 해외 여행은 친척방문 외에는 불가능했다. 화교의 경우는 대만 국적이어서 대만여권을 발급받았다. 한국사람보다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 30~40만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이 비용은 뒷거래용 비용이었다. 당시 한국의 일반 월급은 약 2~3만원이었기에 약 2년간 봉급으로 매우 큰 돈이었다. 당시 화교가 일본에 가는 것은 돈벌이 목적이었다. 허씨는 오사카와 교토의 중국 음식점에서 일했다. 또 3개월의 비자를 받아서, 3개월이 끝나면 다시 일본에서 나와야만 했다. 한국에 와서 다시 출국 수속을 하기 보다 대만으로 가는 편이 일본 재입국에 더 수월했다. 동년배인 한국 화교의 절반이상은 일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가져온 돈으로 중국 빵집으로 경영했고, 76년부터는 중국음식점 붕신원(朋新園)을 경영했다. 장사는 잘되어서 연간 200만 원 정도는 모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 78년 제주시의 산지천 복개지에 점포 한 채를 사서 가게를 이전했다. 그 가게는 산지천 위에 지은 건물로 토지대장에 나오지 않는 곳인데, 산지천 위쪽 동문 로터리에서 북성교까지 수백 미터에 제주시가 3층 건물을 지어 분양한 곳이다. 현재는 철거하여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곳에서도 장사가 번창했다.

- 79년 토지 포함 점포용 건물을 구입하고, 80년부터 대만반점(臺灣飯店)이라는 상호로 장사를 확장하여 더욱 번창했다. 큰 점포를 구입하자 산지천 복개지 자리는 임대로 내놨다. 그러나 제주도청에서 본인에게 복귀하라는 독촉이 심했다. 당시 한국 정부의 화교 정책에 따라 화교는 본인 건물에만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화교가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큰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 200평 이하, 상가 50평 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관공서 주변에는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 부동산을 사서 등기를 받기 전에, 사상검증(중앙정보부 및 보안대), 건설교통부(이전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번호 발행을 거친 후 사법서사로 가서 등

기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 서류 준비를 끝낸 후 도청 → 경찰 →(중앙정보부 혹은 보안대) → 시청을 돌아야 한다. 이전에는 반년이상 걸렸다. 한국인은 허가제도 아니며 한 달도 되기 전에 등기가 완료되지만, 화교는 여러 군데 관공서의 허가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그 사이에 어느 한곳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 구입은 불가능하다.

- 허씨는 영업을 하던 건물을 팔고, 지금은 제주시 탑동에서 영업용 건물을 사서 임대하고 있으며 장사는 이미 접었다. 제주시 신제주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명의는 한국인이라고 한다. 또 대만에도 부동산을 갖고 있다.

- 허씨의 장남은 제주 화교초등학교를 나와 서울 화교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만으로 유학, 대만 국립정치대학(國立政治大学)를 졸업한 뒤 대만 공군에 자원입대했다. 관제사 면허를 취득하여 관제사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교사로 일하고 있다. 부인은 대만 출신으로 대만 국립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다. 둘째 아들은 제주화교초등학교 서울화교중고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셋째 아들은 중학교까지 한국 화교학교 고등학교부터 대만으로 유학했다.[74]

1-3. 楊씨 일가

- 1950년 8월 14일 제주시 산지항에 중국인 81명이 승선한 정크선 해상호海祥號(70톤급)가 한국 해군에 의해 예인되었다. 제주 화교 가운데 최초의 피난이민 대열이자 제주 화교사회에 큰 업적을 남긴 楊氏 일가가 처음 제주에 기착한 것이다.

1-3-1. 입도 과정

- 양씨 일가는 1946년 5월 요동반도 장하현莊河縣(지금의 장하시) 동쪽 장산군도長山群島에 속한 석성도石城島에 살았다. 큼직한 범선 등을 갖고 있어 살기는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나 점차 공산당이 득세하면서 횡포가 심해지자 일가 전부가 이를 피해 산동성 북쪽으로 피신했다.[75] 여기서 산동성 북쪽은 옌타이(煙臺)를 말하며, 양씨 일가는 배 3척으로 출발하여 옌타이에서 1년간 머물렀다. 그러다가 공산당의 마수가 그곳까지 뻗치자 다시 산동 남부의 칭다오青島로 피난하기로 하고 48년 10월 가족과 선원 등 81명이 해상호에 승선하여 칭다오로 향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람 방향이 갑자기 서쪽으로 바뀌더니 손을 쓸 수도

74) 허연경 구술, 2000년, 장소: 자택. 신재경 채집.

75) 秦裕光,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화교」제66화, 「피난이민」, 중앙일보, 1979년 12월 8일. 내용은 주로 피난 당시 18세였던 양병탁楊秉鐸(1979년 당시 제주시 건입동 동순반점 사장이자 제주 화교협회회장)의 구술에 따른 것이다. 그 외에 조부 양충당楊忠當, 백부 양락산楊樂山, 형 병흠(秉鑫) 등이 타고 있었으며, 선장은 형인 병흠(秉鑫), 그리고 周모씨 등 선원 4명이 배를 몰았다고 한다.

없이 강하게 배를 몰아쳐 며칠 동안 서쪽으로만 표류하기 시작했다. 결국 표류하던 해상호는 인천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배 3척 가운데 한 척은 선원들에게 임금 대신 주어 중국으로 되돌아가길 원하는 선원들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두 척이 인천에 남았다.

■ 양씨 일가는 2년간 배에서 숙식하며 낮에 육지로 나가 날품팔이나 노동을 하면서 고단한 삶을 이어갔다. 이후 한국동란이 발발하자 한 척은 인천에 놔둔 채 양씨 일가 50명과 인천화교 50명 전체 100여 명이 해상호에 승선하여 또 다시 피난길에 접어들었다.

■ 해상호는 서해안을 따라 항해하다 군산에서 몇 사람이 하선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다. 원래 계획은 부산으로 가려던 것인데, 완도 근처 청산도(靑山島)에 이르렀을 때 적군의 공작선으로 오인한 미군 전투기가 저공비행으로 접근하더니 해상호 갑판으로 기관총을 마구 쏘아대기 시작했다. 아마도 적군의 공작선으로 오인한 모양이었다. 사격으로 인해 선장 양병흠(楊秉鑫)를 포함하여 선원 5명 중 4명이 사망했고, 살아남은 선원 周氏도 양다리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한의사를 어렵게 찾아 치료를 하였으나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다고 하여 나무를 자르는 톱으로 다리를 절단하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닷새 동안 청산도에 피신했다. 다시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출발했다. 다행히 더 이상 공습은 없었으나 출발하고 5시간 만에 배가 망가져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때 만난 것이 한국 해군 함정이었다. 한국 해군은 사연을 듣고 제주시 산지항으로 해상호를 예인했다. 당시 함장이 5 · 16 이후 군정 제주도지사 김영관이다.[76]

■ 양씨 일가의 제주 기착은 이렇듯 기이한 인연의 연속이었음. 양씨 일가가 해상호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것은 8월 14일. 이는 제주에서 매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연배가 있는 이들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음. 당시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면 당시 제주민들에게 큰 관심거리였음을 알 수 있음.

■ 신문 기사 내용(1)

중국인 피난민 내도

– 서울 인천 등지 거류 화교를 실은 쟝크선이 14일 산지항에 들어왔다. 이 범선은 인천항에 계류되어 있던 것으로 괴뢰군이 침입하기 직전인 28일 중국인 오십여 명을 실고 가진(갖은) 고난을 겪어가며 도착한 것인데 승선자의 대부분은 재류화교 공무원 및 가족들이며 한 명의 신문기자도 섞여 있다. 이들은 현재 동국민학교에 수용되어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왕방(往訪)한 기자에게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피난한 각처에서 한국 해군과 경찰대의 다대(多大)한 구조를 받았었다고 감사에 넘치는 어조로 말하였다. 이 범선은 선호(船號)를 해상호(海祥號)라고 부르는 중국 특유의 대형 장크로 그 선형(船型)이 기괴함으로 인하여 8월 6일 하오 3시 30분경 청산도 부근 해상에서 호주(濠州) 공군에 발견되자 국적불상으로 기총소사(機銃掃射)를 받아 11명의 사상(死傷)을 내었다하며 그 직후 청산도에 주둔하고 있던 아방(我方) 경찰대의 따뜻한 구호를 받아 당지(當地)에 무사입항하게 된 것이라 한다.[77]

76) 秦裕光, 위의 글.

77) 제주신보, 단기 4283년(1950년) 8월 17일.

■ 신문 기사 내용(2)

중국인 피난민에 동정(同情)–동교 여직원 일동 미거(美擧) 국제우애에 피어난 가화(佳話)

– 이것은 또 전시혼란 속에 피어난 따뜻한 인류애의 가화 한토막이다. 지난 14일 인천방면으로부터 북한 괴뢰의 침입을 피하려는 40여 명의 화교를 실고 일로남항(一路南航)하여 당지에 입항한 쟝크선이 있었다함은 기보(旣報)한 바이나 이들 중국인피난민은 그동안 동국민학교에 수용되어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이들의 고경(苦境)에 동정한 동교(同校) 여직원 일동 9명은 넉넉지 못한 수중에서 약 2천여 원의 동정금을 거두고 약간의 떡을 매입하여 중국인들에게 찬응(餐應)하였다는데 이에 감격한 중국인들은 한국 관헌은 물론 일반민까지도 이같이 따뜻한 우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오로지 감사의 눈물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였다.[78]

■ 신문 기사 내용(3)

중국인 피난민을 김 국회의원 위문

– 내도한 본도 출신 국회의원 金仁善씨(제2대 국회의원, 소속정당 국민회, 북제주군 갑)는 지난 23일 읍내 동국민학교에 수용 중에 있는 재한 중국인 피난민들을 방문코 위로한 바 있었는데, 이에 감격한 중국인들은 작昨 25일 정오 전前 인천화교 자치구장(自治區長) 흠명(欽銘)씨 외 1명을 대표로 하여 김 의원을 방문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였는데, 이는 현 국제정세하에 있어서 한중친선을 더욱 두텁게 하는 호별(好別)로 각계의 호감을 갖게 하고 있다.[79]

■ 제주도에서도 양씨 일가는 낮에는 꽈배기 장사, 육체노동 등으로 돈을 벌었고, 밤에는 배가 일가족의 주택이 되여, 어려운 생활의 연명의 수단이 되었음.

■ 해상호는 1959년 사라호 태풍이 불 때도 그대로 남아 일족 10여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1962년 해체하여 한림(翰林)의 통조림공장에 땔감으로 팔았음. 배의 밑창은 이미 물이 들어와 내천이나 다를 바 없었음. 배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민물장어가 상당히 나와서 배를 구입한 사람들은 민물장어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났음.

■ 양씨 일가는 본토에서 이주한 마지막 중국인 집단이자 유일한 피난화교였음. 이후 양씨 일가는 楊樂山을 중심으로 크게 번성하여 중국 화교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으며, 후손들 역시 제주화교로서 제주사회의 일원이 되어 나름의 몫을 하고 있음.

1–3–2. 제주 정착과정 – 양씨 집안 가계도와 양낙산

■ 해상호를 타고 제주에 올 당시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은 양충당(楊忠當)이다. 그는 조부모를 모시고, 원적지인 산동 내주현(萊州縣)을 떠나 요녕성 장가현(壯河縣) 석성도(石城島)로 이주했다. 요녕에 살던 당시 배 5척으로 해상운수사업을 하면서 물자운송을 도맡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한 생활을 했다. 슬하에 5형제, 9자매 총 14명을 두었는데, 해상

78) 제주신보, 단기 4283년(1950년) 8월 20일.
79) 제주신보, 단기 4283년(1950년) 8월 26일.

호를 타고 중국을 떠나올 때 9자매 가운데 7째, 8째, 9째 등 3자매만 데리고 나왔다. 그의 아들 다섯 형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들이자 장남은 양수인(楊樹仁, 양락산)이다. 둘째는 양수병(楊樹屛)이며, 셋째는 양수가(楊樹嘉), 넷째는 양수명(楊樹銘), 다섯째 막내는 양수강(楊樹彊)이다.

- 양씨 일가의 남자들은 돌림자가 충(忠)–수(樹)–병(秉)–갱(賡)–득[(得, 덕(德)]인데, 일가의 수자 돌림은 양충당의 아들들임

- 첫째 아들 楊樂山: 제주에 정착한 후 1952년 유일반점을 개업하여 형제들과 동업하였으며, 슬하에 아들 1명과 딸 2명을 두었다. 그는 중국에서 오기 전에 결혼하여 아들 楊秉珍(1920–1950년)을 두었는데, 안타깝게도 청산도에서 북한 선박으로 오인한 전투기의 공격 당시 기관총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다. 양병진의 아들 양갱규(楊賡奎, 1945–1981)는 부산 화교 출신 서선매(徐善梅, 48년생)와 결혼하여(21세에 결혼) 송죽반점을 운영하면서 슬하에 딸 4명, 아들 1명(양덕훈, 楊德勳)을 두었다. 큰딸과 막내딸은 대만에 살고, 둘째와 셋째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제주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다. 양락산의 직계는 중국음식점 대관원을 운영하고 있는 딸과 손자 양덕훈만 남아 있음.
  – 양낙산(1896–1961년)의 본명은 양수인(楊樹仁), 낙산은 호다. 제주에 정착하면서 집안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양씨 일가가 제주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음.

- 둘째 아들 양수병(楊樹屛): 그의 손주 양갱위(楊賡偉, 1945년생)는 1960년대 상해반점 개업 이후 永盛飯店을 경영했다. 부인 王玉文(부산 화교, 51년생)와 중매로 25세(1969년)에 결혼하여 아들과 딸 각기 2명씩 두었다. 큰 아들이 가업을 잇고 있으며 둘째는 중국, 딸은 대만에서 살고 있다. 부산에서 화교 중고등학교 졸업했다. 부친은 아들 2명, 딸 3명을 두었는데, 楊賡偉는 둘째이며, 첫째 양갱석(楊賡錫)은 중국에 남았다. 1950년 해상호를 타고 군산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하산한 후 5년 뒤인 1955년에 제주에 정착했음.[80]

- 셋째 아들 양수가(楊樹嘉): 태동루를 경영한 적이 있음.

- 넷째 아들 양수명(楊樹銘, 1920–2004년): 유일반점을 개업하여 현재 그의 아들인 양병운(楊秉運)이 가업을 잇고 있음.

- 다섯째 아들 양수강(陽樹彊, 1940–현재): 현재 양락산의 형제로 樹자 돌림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하는 인물이다. 제주에 정착한 후 약간의 보상금을 받아 미화잔(美華棧, 제주은행 본점)을 운영했다. 형제들과 함께 화교협회를 만들고, 화교 학교 개설 때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초기에 언어가 불통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었음. 부산에서 화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부산, 울산 식당에서 일하다가 1967년 한림 보영반점을 운영했다. 지금 주인은 처남집이다. 이후 중화음식점 홍보석(紅寶石)을 경영했으며, 현재는 일선에서 은퇴하고 그의 아들 양병립(楊秉立)이 가업을 이었다. 양수강의 구술에 따르면, 화교 황

80) 楊賡偉(45년생) 구술, 2019년 8월 8일, 장소: 영성반점

금기는 1970년대였으며, 인재들도 많았다. 한라문화제 등에서 화교협회 명의로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 15년까지 옌타이에서 10년간 생활했는데, 이는 오로지 손자들이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양수강은 화교 3, 4세들이 중국어를 모르지만 자신의 손자들은 중국어를 잘 한다고 말했음.[81]

■ 북경반점은 楊忠當의 형님의 후손으로 옌타이에서 3척의 배 가운데 하나인 요녕호(遼寧號)를 타고 왔으며, 별도로 입도했다. 현재 주인은 증손인 양덕의(楊德義).

1-3-3. 양낙산의 업적

■ 첫째, 제주화교소학교 설립에 큰 역할을 했다. 1951년 양낙산과 그의 형제들은 후세들의 교육을 위해 중국인을 위한 학교 설립을 위해 제주화교소학를 임시로 운영했다. 학교 건물이 없어 화교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수업을 하거나 마당이 넓은 곳에서 천막을 치고 수업을 하기도 했다. 1953년 제주화교소학교는 첫 번째 졸업생으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 등 전체 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후 그는 서울, 부산, 인천, 목포 등을 다니면서 학교 설립을 위한 모금을 하여 1957년 제주시 삼도2동 909번지에 땅을 사고 제주화교소학교를 설립함.

■ 둘째, 양낙산은 양씨 일가의 장남으로 집안의 구심점이었으며, 형제를 비롯한 후손들이 제주사회에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양씨 일가는 인천에서 지낼 당시 그곳의 중화요리를 배워 제주에 정착한 후인 1951년 UN軍으로부터 당시 돈으로 2만원의 정착금을 받아 중앙성당 앞에서 유일반점을 개업하여 형제들과 함께 경영했다. 1957년 요동반점을 혼자서 개업하고 성공하였으나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 이후 1959년 다른 장소에서 요동루를 경영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1961년 다른 곳에서 송죽원을 경영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실패하고 1961년 6월 65세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음.[82]

■ 특기할 만한 부분 : 해상호 복원

– 2002년 제주시는 1950년 81명의 중국인이 승선하여 산지천으로 들어온 피난선 해상호를 복원하기로 결정. 2002년 10월 11일 산지천 하류 용진교 부근에 총 9억700만원을 들여 원래 크기의 2분의 1로 축소한 길이 25m, 너비 9m, 높이 5.6m의 모형을 복원하고 준공식을 가졌음. 제주상권의 중심지였던 산지천을 복원하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중화권 관광객들에게 제주와 중국을 잇는 현대사의 일면을 보여주기 위함. 복원된 해상호 내부에 170㎡의 전시공간을 조성해 당시 중국인들의 선상생활을 재현.

– 그러나 해상호는 제주시의 당초 취지와 달리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여

81) 陽樹彊 구술, 2019년 8월 7일, 장소: 홍보석(紅寶石)
82) 陽樹彊 구술, 2019년 8월 7일, 장소: 홍보석(紅寶石)

론이 형성되었고, 관광객 수도 매년 2천 명을 넘지 않았음.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훼손이 가속화되고, 오염과 악취까지 풍겼으며, 급기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험성마저 제기. 결국 제주시는 전면적인 내부수리 대신 철거를 택했으며, 2015년 완전히 철거.

1–4. 孫씨 일가

■ 제주에 입도하여 자수성가한 손씨 일가는 산동성 옌타이 무핑현 牟平縣 출신인 孫建邦(1904?–1954)의 자손이다. 손건방은 중국에서 결혼하여 3녀를 두었으나 중국이 공산화되어 왕래할 수 없게 되어 한국에서 전라도 영광 출신의 한국인과 재혼했다.[83]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인 손립영(孫立楹)은 50대에 부산에서 작고했고, 둘째는 손립걸(孫立杰)로 제주에 입도하여 중국음식점 대성춘(大盛春)을 경영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셋째는 딸인 손립연(孫立娟)이다. 그리고 막내가 손립본(孫立本)이다. 손건방은 21세에 장사를 하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법성포에서 비단 장사를 했다. 동생은 회계를 보았으며, 큰형은 고향에 남았다. 손건방은 제주에서 생활한 적이 없으니 화교 손씨 집안의 입도 1세대는 손립연과 손립본인 셈이다.[84]

1–4–1. 손립연

■ 손건방의 딸 손립연(1945년생)은 전라남도 법성포에서 태어난 화교 2세이다. 모친은 한국인이며, 4남매의 셋째이다. 부산에서 화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남편을 만나 1968년 제주로 와서 33세에 결혼했다. 남편은 산동 화교 출신으로 8남매의 맏아들인 왕의광(王懿光, 1940년생)이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으며, 66세에 사망했다. 시아버지인 왕주엽(王周葉)이 67년쯤 제주에서 터를 잡고 보영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보영반점은 원래 홍보석의 주인인 양수강(陽樹彊)이 운영하던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남편이 사망한 후 1972년 외아들인 왕소인王昭仁이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다. 딸(왕령王玲)은 화순에서 음식점 '호가(好家)'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림의 보영반점은 한림의 유명 중국음식점으로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삶이 윤택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 "제주에 도착하여 결혼하고 제주시 홍보석에서 하루 잔 다음 한림에 처음 와서 보니 음식점이라고 탁자가 겨우 3개인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었다. 당시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밀가루 포대(당시에는 베로 만들었다)로 이불을 만들어 덮고 잘 정도였다. 3년 정도 지났나 정부에서 분식을 장려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만 쌀밥을 먹게 했는데, 밀가루

83) 孫立本 구술에 따르면, 조카 曲學利는 모대학 총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84) 孫立本 구술, 申恩齡(부인), 손리나(큰딸) 참석, 2019년 6월 27일 오후 2시–5시, 장소: 명월 초등학교. 孫立娟 구술, 2019년 8월 13일, 오후 7시–8시 30분, 장수: 한림읍 소재 보영반점寶永飯店.

를 쪄서 밥처럼 만들어 볶음밥을 만들었다. 연탄이 보급되기 전에는 목재소에서 부스러기 나무를 한 리어카에 2천 원씩 사다가 풍로로 불을 지펴 음식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중화요리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 설거지나 배달을 했는데 한림에서 금릉까지 가기도 했다. 나중에는 남편 대신 직접 요리를 맡았으며, 이외에 설거지나 배달까지 맡아야만 했다. 72, 3년 당시 짜장면 값은 40원이었다. 보영반점에서 번 돈으로 시동생 학교 다보내고(막내 시동생은 대만에서 대학을 다녔음), 대만에 있는 시동생에게 집을 사주기도 했다. 옷 한 벌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었으나 자식 생각에 참고 살았다(인터뷰 도중에 설움에 겨워 눈물 흘림) 시동생, 시누이들은 모두 타지나 대만에서 살며 제주에는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

■ 이렇듯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극복하고 억척같이 보영반점을 운영하여 남편의 8남매 형제와 자식 4남매를 모두 키울 수 있었다. "38세부터 생활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으며, 남편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어서 라이온스 클럽 등에서 3지구 24대 회장, 부총재까지 역임했다."

■ 그녀는 "제주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했던 고향과도 같다."고 하면서 "가족 건사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며, 88년에 집을 매입하여 현재 3층짜리 건물을 세우고, 한림의 유명 식당으로 발전한 것이 행복하다."고 했다. 그녀는 지금도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기도 한다. 남편이 사망한 후 뒤를 이어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하여 사회봉사도 하고, 도지사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공로상과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남편 역시 살아 있을 때 태풍으로 한림항으로 들어온 50여 척의 중국배 선원들 통역을 맡기도 했으며, 소방서 등에 기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다.

1-4-2. 손립본

■ 손립본은 손건방의 넷째 막내아들로 부산 초량 화교학교를 졸업하고 63년 광주 화교중학교(4-5년)를 다녔다. 이후 이리 포목점(3년)을 거쳐 강원도 삼척에서 제일반점(73년)을 경영했으며, 1978년 1월 서울로 이사하여 염천교 국일대반점(대왕빌딩 2층)에서 牟, 邢, 張 세 명의 사부에게 중국요리를 배웠다. 1980년부터 강남 만강홍滿江紅에서 11년 동안 조리장으로 근무하다가 1991년 9월 모친과 형님이 살고 있던 제주로 이사하여 중국음식점 만강홍(滿江鴻)을 경영했다. 당시 형님은 지금의 만강홍 반점 앞에 있는 대성춘(大盛春)이란 중화반점 운영하고 있었는데, 형님의 권유로 제주로 와서 만강홍 시작한 것이다. 현재 만강홍 앞 가옥(40평)을 임대하여 14년 운영하다 현재 자리에 만강홍을 개업했다. 지금은 한국인에게 매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1977년 3월 한국인 신은령(申恩齡, 1957년생)과 결혼하여 리나와 옌나 두 명의 딸을 두었다. 큰딸은 서울 화교초등학교 졸업 후 14살부터 대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臺灣 國立彰化師範大學 생물학과)을 졸업하고 제주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다. 11년동안 대만에서 생활하다가 현재 귀화하여 모처에서 재직하고

있다. 작은 딸도 대만에서 동오대학을 다니다가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번역 일을 하고 있다.

- 손립본은 요리를 천직으로 여길 정도로 중국요리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대단했다. 특히 국일대반점에 있을 때 사부들로부터 요리를 배웠다. 그는 "40여 년 동안 중국요리를 하면서 성실성, 청결 유지, 초지일관, 사람에 대한 신뢰(특히 직원에 대한 인간적 대우) 등을 중시했다."고 한다. 서울 만강홍 재직당시 한국화교조리사협회를 창설하여 총무를 맡았고, 제4대 내무부회장, 이사, 고문 등을 역임했다. 제주로 내려와서는 제주화교조리사분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시돌 요양원에서 짜장면을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해왔으며, 지금도 원하는 이가 있다면 요리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다.
- 그는 화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국적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딸이 국적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아서 한 것이라 여기고 존중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섣달그믐날, 춘절, 3년상 등 중국명절을 지키고 있으나 위패를 모시거나 사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 화교유적

2–1. 제주화교 초기 상업활동 지역(포목점, 중국요리점)

2–1–1. 제주 성내–삼도동 일대

- 위치: 제주시 삼도동 일대
- 의의: 제주 초기(1910–1930년대) 화교들의 상업 활동 중심지로서 포목상, 중국요리점이 있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상인들과 경쟁하였음
- 근거: 총독부 관보, 매일신보, 중외일보

〈사진 5–1〉 1960년대 삼도동 일대[88]



85) 1960년대 관덕정 부근, https://blog.naver.com/kswinner/221269424010

2-1-2. 서귀포 솔동산

- 위치: 서귀포 솔동산 일대
- 의의: 일제 강점기 중국음식점 흥성원, 잡화상 천생상 등 화교 상점들이 상업 활동을 하던 곳
- 근거: 면담자료(최용상, 허연경)

〈사진 5-2〉 서귀포 솔동산 일대[89]



2-2. 화교 노동자 일터: 한림 옹포리 통조림 공장

- 위치: 한림읍 옹포리, 다케나카(竹中)통조림 공장 터
- 의의: 다케나카 신타로(竹中新太郎)가 1928년 설립한 통조림공장으로서 제품은 어패류와 쇠고기, 청어(鯖魚) 등 통조림으로서 전시에는 일본 군인들에게 부식을 제공했던 군수용 통조림공장 역할을 하였음. 1930년대 직원은 44명인데 이중 8명이 일본인이고 나머지 제주도민과 중국노동자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화교 노동자 10여명이 일하고 있었음. 이들로 인해 가족을 포함하여 한림지역에 화교들이 모여들게 된 배경
- 근거: 면담자료(왕복안, 허연경)

〈사진 5-3〉 옹포리 통조림공장[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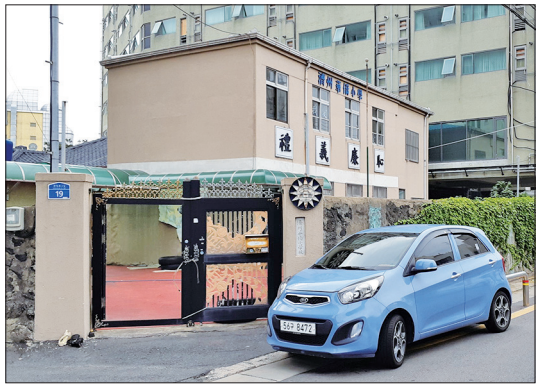
86) 1981년 서귀포 솔동산 일대, https://cafe.naver.com/idiolle/967356
87)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 방안, 2013

2–3. 화교소학교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909

– 의의: 1951년 설립된 최초의 화교학교, 현재의 건물은 제주화교는 물론 전국 화교의 모금으로 1957년 건립, 내력을 적은 현판 보관

〈사진 5–4〉 화교소학교 전경[91]



2–4. 해상호

– 위치: 제주시 산지천 하류 용진교 부근에 전시했다가 철거

– 의의: 1950년 81명의 중국인이 승선하여 산지천으로 들어온 피난선으로 이 배를 타고 온 양낙산 일가는 해방 후 제주화교의 주축을 이룸

〈사진 5–5〉 해상호 전경[92]



88) 모수분 선생 면담 시 촬영.

89) 해상호 전경,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045

3. 제주화교의 시공 또는 보수공사 참여로 추정되는 건축물, 사회간접자본

3–1. 산지항

– 위치: 제주항 인근

– 의의: 1926년 대대적인 개발공사로 산지항이 개발될 때 중국인 단순노동자들이 힘든 건설과정에 참여

– 근거: 제주 원로 한학자 김익수 증언

〈사진 5–6〉 1930년대 산지항 전경[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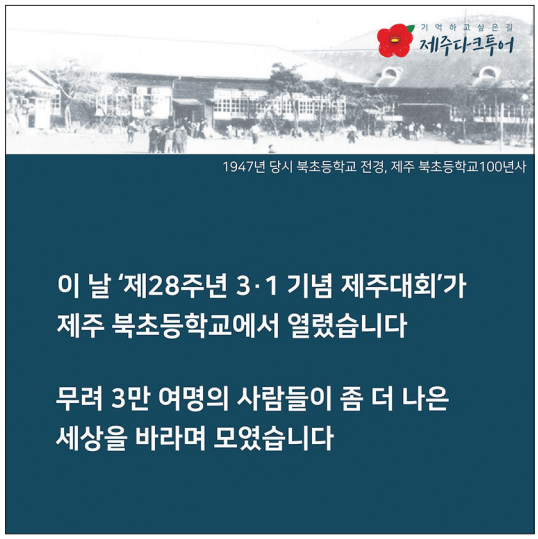
3–2. 제주북초등학교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중앙로8길 18

– 의의: 일제강점기에 제주화교 직공들이 건물 보수공사에 참여

– 근거: 면담(허연경) 증언

〈사진 5–7〉 1947년 제주북초등학교 교사 모습[94]



90) 사진으로보는제주역사 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1900~2006.1, 제주특별자치도, 2009.
91) 제주북초등학교 100년사, 제주북초등학교총동창회, 2009.

3-3. 제주도립병원

- 위치: 제주시 삼도2동 154 (중앙로14길 21)
- 의의: 1912년 일제가 찰미헌을 허물고 지은 건물로 제주 자혜의원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제주도립병원이 됨. 1937년 개축공사를 하였고 1997년 제주의료원 증설과정에서 헐림. 제주화교 목공과 석공이 건립 및 개축과정에 참여
- 근거: 면담(허연경)

〈사진 5-8〉 제주도립병원[95]



3-4. 제주중앙성당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관덕로8길 14
- 의의: 1930년에 건조된 고딕식 적벽돌조 건물, 1980년대 새 건물이 들어설 때 해체, 제주화교 석공들이 적벽돌 시공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

* 명동성당, 대구 계산성당, 광주 북동 성당 등 개회기와 일제강점기에 건조된 대부분의 근대식 적벽돌 건물은 화교 석공들이 시공에 참여한 것으로 보임[93]

〈사진 5-9〉 제주중앙성당[97]



92) 제주도립병원 전경,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93) 이정희, 2018, 한반도 화교사, 서울: 동아시아, p 594
94) 제주중앙성당 전경, http://www.jejucath.org/bbs/board.php?bo_table=00104

4. 기타유물

4-1. 고교(高跷), 사자춤 등(한라문화제 참가 중국민속놀이)

– 의의: 1962년부터 제주화교들은 한라문화제에 참석하여 '가오차오[고교(高跷)]'를 통해 제주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중국문화를 알림

〈사진 5-10〉 한라문화제 가장행렬[95]



4-2. 주요 소장사진 등

– 1957년 중화민국(대만) 대사로부터 공로 포장을 받는 양낙산과 왕정춘

– 장소는 서울 소공동 중화민국 대사관

– 앞줄 좌로부터 2번째가 왕정춘, 양낙산, 왕동원 대사, 무관

〈사진 5-11〉 공로 포장 수여식 기념사진[96]



〈사진 5-12〉 포장 증서[97]



95) 제주어연구소, 제주어 2호, 한그루, 2019.
96) 왕복안 사장 제공.
97) 왕복안 사장 제공.

Ⅵ. 결 론

1. 제주화교의 역사적 의의

1-1. 뛰어난 개척 정신과 상황 적응 능력 발휘

■ 1882년 국내에 화교가 이주를 시작한 후 대부분 한성과 인천과 그리고 부산 등 개항도시에 집중되어 거주하는 가운데 일군의 화교들이 한국 남단인 제주까지 진출하였음

■ 공식기록에 따르면 1909년에 이미 3가구 5명의 화교가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최소 110년 전부터 제주까지 와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제주 초기화교는 소규모 포목 행상 또는 상점, 그리고 목공과 석공 등 직공들로 추정이 됨

- 1915년 永順興이라는 비단을 파는 잡화상점이 확인되며, 1920년대에는 호남 최대 포목상중 하나였던 목포의 新盛號 지점도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일제는 을사늑약 이후 식민통치를 위해 재판소, 경찰서 등 지배기구 건물 건설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립을 위해 임금이 싸고 기술력이 있는 화공들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응하는 화교 직공들이 제주 진출

■ 전성기인 1930년대 초반에는 100명에 가까운 화교들이 거주하며 화교사회가 활성화되었음

■ 이러한 제주화교사를 통해 발굴할 수 있는 제주화교의 의의는 무엇보다 개척정신과 상황적응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임

■ 교통여건과 상업활동 기반이 미비된 110년 전에 인천, 원산, 부산 등 기존 개항장을 나두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 과감하게 원격지인 제주까지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추진한 것은 초기 제주화교가 갖는 개척정신과 상황적응 능력이라할 수 있음

■ 이러한 개척정신은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 사업가들은 물론 제주-중국간 교류를 추진하는 지자체에게도 값진 귀감이 될 것임

1-2. 제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사회적 책임 수행

- 일반적으로 화교는 타협하지 않고 중국의 문화적 전통을 고수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무관심하며 경제적 기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1927년, 1931년 2차례의 화교 배척운동과 해방이후에도 규제정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제주화교는 독특하게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음
- 제주화교들은 4.3 사건시 피난 온 제주 주민들을 중화민국기를 내걸고 가택에 보호하기도 하였으며, 60-70년대 한라문화제 활동에도 사자춤 등 중국 민속놀이로 지속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행사 기금을 출연하여 지역민과 문화적 호흡을 같이 해왔고, 지역도로 부설 등에도 기여해 왔음
  -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화교 목공과 석공, 노동자들이 북초등학교, 도립병원 등 제주 근대식 건물 건축과 보수, 산지항 개발 등 제주 인프라 구축건설에 참여하였음
- 이러한 화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수행 사실은 1992년 한중수교이후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이주자, 유학생 등 신화교에게 제주 지역과 더불어 사는 지역 거주인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는 데 좋은 역할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함

1-3. 제주지역 다문화 사회의 선구적 모델 역할

-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에 가까운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환경으로 진입하였음
- 그러나 다문화사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임
  -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 존재
- 다문화사회의 장점으로는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는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음
- 다문화사회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함께 새로 이주해온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 간 잠재적 갈등이 현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안고 있음
- 이런 점에서 이미 110년 전에 제주로 건너온 화교들은 현재 다문화 사회의 선구라 할 수 있고, 지난 세월 이들이 살아온 생활사는 다문화의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많은 시사를 해줌
  - 제주화교들은 이질적인 문화와 많은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상업활동과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하였으며 다양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어울렸으며 동시에 언어나 화교학교 교육 등을 통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음

– 특히 많은 화교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고 필요에 따라 귀화를 통해 제주도민으로서 정착하였지만 중국문화의 전통성을 지켜오고 있음

1–4. 제주–중국간 관계증진을 위한 역사적 콘텐츠 제공

■ 지난 110여년의 제주화교사는 제주–中國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 물적, 역사적 콘텐츠 資源을 남겨주었음

– 제주화교사와 대표적 인물의 스토리 자원

– 화교학교, 지금은 개발로 사라진 제주 성내 및 서귀포 포목점과 중국요리점 영업지역, 화교 노동자들이 시공과 보수에 참여한 근대 건축 등 유물 자원

– 현재 활동하는 구화교 및 신화교, 이들과 연결된 중화권 네트워크 등 인적 자원

– 현존하는 제주도내 소재 화상 음식점 등 물적 자원

■ 이러한 역사적 콘텐츠는 제주–中國간 경제 및 관광,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2. 제주도의 화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과제

2-1. 제주화교에 대한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주화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그들이 더 이상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한다면, 제주화교의 인권신장은 물론이고 평화의 도시, 국제화 도시로서 새로운 면모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임

– 제주화교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중화민국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으므로 제주도가 적극 나서서 제주 화교 커뮤니티를 적극 지원하면 외형적인 중국인 유치 전략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 중국관련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이는 아울러 전국 화교 중 희망자들의 제주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자연스런 "차이나타운 형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2-2. 제주화교 기념관 설립과 문화유산의 발굴 및 활용

■ 공식기록상 2019년은 제주화교의 입도(入道) 110년이 되는 해로 초기화교들이 주로 활동했던 城內 지역(삼도동 일대)에 화교기념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화교 포목상점이나 중국요리점의 위치를 추적하여 원도심 건물을 활용하여 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강구

– 현재 사실상 폐교되어 방치된 제주화교 소학교 건물의 장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제주화교 기념관과 제주중국문화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 필요

– 화교 1,2세대의 사거로 멸실 위기에 있는 화교자료, 사진을 기증받아 전시하고 기념할 뿐 아니라 관광 자원화

– 인천, 부산, 군산시 등이 화교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 서귀포 솔동산, 한림 옹포리 등 오래된 화교활동 지역에 안내판 설치

■ 기타 유 · 무형의 화교 문화자산을 추가 발굴할 필요

– 중국 풍속놀이 재현, 화교 소장 자료 발굴 등

2-3. 제주화교에 대한 잔존 규제 실태조사와 실질적 규제 완화

■ 국내화교는 일제 강점기에는 견직물 고관세 정책과 배급제 실시 등으로 화교 활동을 억제하였으며, 중일전쟁 이후에는 친일 강요와 감시를 통해 화교의 자유를 억압하였음

■ 해방 후에는 일시적으로 규제가 없는 부흥기를 맞았으나 1948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화교의 경제력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으로 많은 규제정책을 시행하였음

- 가장 대표적이고 화교들을 힘들게 했던 규제는 1961년 시행된 외국인 토지소유금지 규제였음
- 1968년 주택용 토지는 200평, 상업용은 50평 이내에서 소유가 허용되었으나 이 역시 화교의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였음
- 또한 귀화억제 정책으로 외국인 신분으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음
- 많은 화교들이 1970년 후반부터 미국, 캐나다, 대만 등으로 재차 이주하게 된 것도 이러한 규제정책과 관계가 깊음

■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소유제한 규제가 폐지되었고, 2002년에는 영주권제도가 도입되어 외국인으로 받던 차별이 많이 완화되었음

■ 그러나 아직도 화교가 생활하는데 지장을 주는 다양한 규제내용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규제의 범위가 차이가 남

■ 따라서 잔존규제의 실태를 조사하여 화교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함

- 아직 남은 규제로 제기되는 것은 자동차 할부금융 규제, 노령연금 및 버스 노인 할인 등 복지혜택 제외 등이며 취업기회 차별 등 보이지 않는 규제도 상존

2-4. 제주화교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 제주발전을 위한 우량 기업과 자본유치, 질적인 관광 성장, 제주-중국간 교류 활성화는 화교에 대한 이해와 파트너십이 필수적인 요건

- 화교는 이미 80년대 중국개방의 주역으로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의 50%이상을 담당하였고, 현재도 전 세계 6,000만 명과 보유 유동자산 3조 달러 규모를 앞세워 동남아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을 주도
- 특히, 21C 중국 최고 상방(商幇)으로 부각되고 있는 산동방(山東幇)(하이얼 그룹, 하이센스, 더블스타 등)은 국내 화교들의 後裔라 할 수 있으므로 미래 경제협력 대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존재임 (더블스타는 2018년 금호타이어 인수)

■ 따라서 제주화교를 통한 글로벌 화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주의 대중 진출에 있어서 화교를 중요한 파트너로 활용

■ 화교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및 지역별 화교회의 및 행사의 제주 유치

– '세계화상대회'는 세계 화교 상공인들이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세운 연합체로 1991년 당시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 총리의 제안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된 후 2년마다 열리며 2019년 에는 영국 런던서 개최

– 2018년 10월 부산에서 세계화상대회 회장단 포럼 및 제7차 고문위 회의가 개최되어 세계 유력 화교기업인 100명 회합

■ 현재 1만명 넘는 제주권 중국인들을 파트너로 적극적인 전략적 홍보 및 마켓팅 추진 노력

– 이들을 대중국(對中國) 제주 홍보대사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제주도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

2–5. 산동지역 도시와의 결연과 교류 강화

■ 제주화교의 고향으로 역사적 연고가 큰 산동성 연태(煙台)시, 청도(靑島), 위해(威海) 등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큼

– 현재 제주의 자매 도시는 하이난, 우호 도시는 상해, 다롄

■ 연태와 위해는 대부분 제주화교의 고향으로서 화교를 통한 교류를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

– 제주화교는 현재의 연태에 속한 모평현, 복산현, 황현, 내양현 등, 위해에 속한 영성현 등 출신이 대다수임

2–6. 제주–중국교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씽크탱크 설립

■ 대학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화교를 포함한 중국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제주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중 교류 활성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인천대의 중국학술원 등 벤치마킹 필요

참고문헌

1. 문헌자료

목포부사, 1930

제주도지 상권, 1982

제주도지 제 2권, 1993

제주북초등학교 100년사, 2009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39편 「생활상태조사.(其2)」 濟州島,1929.

조선총독부 昭和5年 朝鮮國勢査報告, 1934.

조선총독부 昭和12年 濟州島勢要覽, 1937.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년도

통감부, 제주도현황일반

2. 논저

강진아, 2011, 『동순태호』, 경북대학출판부

강창룡외, 1997,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경성상업회의소, 1929, 「朝鮮における外國人の經濟力」, 『朝鮮經濟雜誌』 159(3월호)

김경학, 2012, 「한국 화교의 초국가적 성격과 전망–광주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1집

김 승, 2014, 「일제강점기 부산화교의 존재형태와 사회정치적 동향」, 『지역과 역사』 34호.

김승욱, 2011, 「19세기 말~20세기 초 仁川의 운송망과 華僑 거류양상의 변화」, 『중국 근현대사연구』 50.

김영신, 2005, 「日帝時期 在韓華僑(1910 ~ 1931)– 仁川地域 華僑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4.

김태웅, 2010, 「日帝下 群山府 華僑의 存在形態와 活動樣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김희신, 2014, 「화교, 화교 네트워크와 주한 사관」, 『중국사연구』 제89집.

문미라, 2009, 「근현대 화교의 제주도 정착과정과 사회적 위상」,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정현, 2014, 「1927년 재만동포옹호동맹의 결성과 화교배척사건」, 한국중국학회, 『中國學報』 第69輯

박현옥, · 박정동, 2003,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IDI 연구보고서』 2003–11, 인천발전연구원.

배종태 · 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31(1).

송승석, 2010, 「한국화교 연구의 현황과 미래」, 『중국현대문학』 제55호.

신재경, 2000, 「제주도 華僑의 어제와 오늘」, 오사카 한국화교연구회 발표자료

양세영, 2018, 「개항기 및 일제 강점기 전기(前期, 1893~1924년) 목포화교의 경제 · 사회적 활동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1권 제2호

양필승 · 이정희, 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왕은미(송승석 옮김), 2013, 『동아시아 현대사 속의 한국화교』, 학고방.

이덕훈, 1997, 「화교기업의 기업가적 특성과 문화」, 『생산성논집』 11-2

이영권, 2005, 새로 쓰는 제주사, 서울: 휴머니스트

이옥련, 2005, 『근대 한국 화교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이은상, 2016, 「원산화교와 배화폭동(排華暴動)」, 『中國近現代史研究』 第72輯.

이정희, 2005,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 『대구사학』 80집.

———, 2005, 「植民地朝鮮にお ける華僑経済に関する研究 (1905年-1930年) - 朝中貿易を中心に - 」, 『京都創成大学紀要』5(1).

———, 2016, 「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 인천화교배척사건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第135輯.

———, 2017, 「조선화교의 중화요리점 연구—1880년대~1920년대를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제 114집, 한국사회사학회.

———, 2017, 「조선 화교의 성당건축 시공 활동(1880년대~1930년대)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교회사 연구』 제51집.

———, 2018, 화교가 없는 나라, 서울: 도서출판 동아시아

———, 2018, 한반도 화교사, 서울: 동아시아

이정희 · 송승석, 2015,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 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學古房.

이창호, 2008,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인천 화교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4권 제1호.

장세윤, 2003, 「만보산 사건 전후 시기 인천 시민과 화교의 동향」, 『인천학연구』2-1호.

제주발전연구원, 2013, 제주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 방안

조선총독부, 1924, 『朝鮮に 於ける 支那人』.

朝鮮總督府, 1924,『朝鮮部落調查報告 : 火田民來住支那人』.

조세현, 2013,「식민지도시 부산의 '시나마찌(支那町)'와 화교들」,『역사와 경계』제87집.

조영윤, 2013,「1920–1930년대 빈민실업문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과 중국인 노동자」,『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진유광, 2012,『중국인 디아스포라』, 한국학술정보.

盧冠群, 1956,『韓國華僑經濟』, 臺北: 海外出版社.

石源華 ; 李輔溫 編, 1995,『中國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 : 大韓民國關聯史料 上』, 서울 : 高句麗

楊昭全 · 孫玉梅, 1991,『朝鮮華僑史』.

華僑志編纂委員會, 1958,『韓國華僑志』.

小田內通敏, 1925,「朝鮮に 於ける 支那人の 經濟的勢力」,『東洋講座』.

3. 신문 및 잡지 등

每日申報, 1926.7.18., 1938.1.5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제주의 소리 2013.6.9

중외일보, 1929.8.3

주간조선, 2373호, 2015.9.7

4. 면담자 현황[98]

성명	원적	직업 및 화교단체 직위	비고
1. 楊秉運	산동 내주현萊州縣 → 요녕성遼寧省 장가현壯河縣 이주	제주화교협회 감사장, 유일반점 주인	양낙산의 조카
2. 王福安	산동 내양현	덕성원 주인	부친: 王亭春(제주 1대 화교)
3. 許延慶	산동 황현	전 화교협회 부회장	부친: 許鏡寰(제주 1대 화교)
4. 王德義	산동 萊州縣 → 遼寧省 壯河縣이주	현 화교협회 회장, 북경반점 주인	부친:楊賡富, 양낙산과 일가
5. 崔龍翔	산동성 모평현牟平縣	만진루(서귀포) 주인	조부:崔厚聲(제주 1대 화교)
6. 徐善梅	산동성	부산 출신 화교로 제주로 출가	양낙산의 큰 며느리
7. 慕秀芬	산동성 영성현	화교소학교 교사	부친: 慕吉松, 인천에서 제주로 이주
8. 孫立本	산동성 모평현牟平縣	만강홍滿江鴻 주인	부산–이리–서울–제주 91년에 입도, 孫立娟의 친동생
9. 楊樹疆	산동 萊州縣 → 遼寧省 壯河縣이주	홍보석紅寶石 주인	양락산의 막내 동생
10. 孫立娟	산동 연대煙臺 모평현	보영반점寶永飯店 주인	부친 손경방孫建邦(1904?–1954. 한국 1대 화교), 전라남도 법성포 출신

98) 면담조사 일러두기: 면담 대상은 제주도화교협회(양덕의, 양병운, 허연경), 1950년 이전 이주화교(허연경, 최룡상, 왕복안) 및 이후 이주화교(양락산, 손립본), 화교소학교(모수분)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이 전체 제주화교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주 시기별, 집안별, 지역별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면담 가능자(가능한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집안 대표자들)를 선발하여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은 면담조사 내용을 기록하면서 부기했다.

Abstract

The study on tracing the history of overseas chinese in Jeju(Jeju Hwagyo) and their cultural heritage

Yang Se Young, Shim Kyu Ho, Hou Lin, Shin Jae Kyung,
Kim Eun Young, Kim Kyu Tae

This study aims to lay the groundwork for revitalizing relationship with Jeju and China by tracing 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Jeju Hwagyo society and further expand the horizon of Korean Hwagyo history.

According to records, the first time when the Jeju Hwagyo came to Jeju was in 1909, and there were five from three households. For 110 years since then, Jeju Hwagyo has been a member of Jeju society with Jeju residents.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Jeju Hwagyo

When they first came in, they worked as a woodworker and a stoneworker, and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f Jeju's main public buildings. And in the Japanese occupation, Jeju Hwagyo actively supported the commercial activities through running textile stores, miscellaneous stores, and Chinese restaurants.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Sino-Japanese War brought the Chinese community back to its home country, but after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the Chinese society was restored. Since 1950, the Jeju Hwagyo have been operating mainly Chinese restaurants to mark the beginning of Jeju's restaurant culture, and have served as a channel for the transfer of Chinese culture. Some of the important families of Jeju Hwagyo in those days include Yang, Wang, Huh and Sohn.

The Jeju Hwagyo Primary School served as a cultural center for Jeju Hwagyo, but it was recently closed and needs to come up with a plan to use it in the futur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Jeju Hwagyo are as follows: 1) they demonstrated the pioneering spirit and ability of environmental adaptation 2) they carried out certain

social responsibilities for Jeju communities; 3) they served as a pioneering model for Jeju's multicultural society; 4) they provided historical contents needed for Jeju-China relationships.

As such, even though Jeju Hwagyo have made many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they have been subjected t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and regulations still remain.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the task is to harmonize between the old Hwagyo and new Hwagyo who are flowing in from China.

The construction of a memorial hall is necessary to commemorate the Jeju Hwagyo ,and above all, the special ordinance by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Government on the Jeju Hwagyo should be enacted for making a new face as a city of peace and internationalization as well as the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Jeju Hwagyo.

부 록

1. 제주 신화교(新華僑) 대상 설문조사

제주 신화교 대상 설문조사

2019. 11.

華僑 · 華人 · 華裔 · 新화교 · 화인이란?

◈ 華僑: 是指在國外定居的具有中國國籍的自然人。華僑是中華人民共和國的公民，依法享有中國公民應有的權利，并履行相應的義務。華僑不包括出國旅行、訪問人員，政府派往他國協助建設的工人和技術人員，以及國家派駐外國的公務人員和在國外學習的留學生。對於具有中國血統，但已經加入或取得外國國籍的人，也不能視爲華僑。據《中國國際移民报告(2015)》統計，僑居海外的華人華僑已有6000多萬，分布在世界198個國家和地区。

본국을 떠나 해외 각처로 이주하여 현지에 정착,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문화적 · 사회적 · 법률적 · 정치적 측면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유지하고 있는 中國人 또는 그 자손을 가리킨다. 화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華裔: 華裔是中國人在國外所生并加入所在國國籍的子女及其後代。因此其后去國外國籍的時間是其出生時、获取國外國籍時間不一樣。華裔不受中國法律約束和管轄，只接受所在國的法律的約束和管轄。

조상이 中國人인 자손을 화예(華裔)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현지 국적을 취득하고 혼혈동화(混血同化)되어 이미 지연(地緣) · 혈연(血緣)의 의식이 희박해져서 법률적 ·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으로도 본국과의 연관성이 약하며, 언어조차 모국어를 모르는 채 현지인화 된 자도 많아 사실상 화교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 海外華人: 從20世紀开始代指中華五十六个民族全體，分爲海内華人和海外華人，也是指已經加入或者取得外國國籍的中國血統的人，華人也不受中國法律約束和管轄，只接受所在國的法律的約束和管轄。

화인(華人)은 보통 외국에 거주하는 中國계 주민 중 해당국 국적 보유자를 지칭한다. 해외 화인은 中國의 법을 구속 받지는 않고 해당국의 법을 지켜야 한다.

◈ 新華僑 · 華人 : 1992년 8월 24일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은 국교를 수립한 후에 중국에서 새롭게 이주한 화교 · 화인을 기존 한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과 구별하고, 이들을 新화교 · 화인라고 부르고자 한다.

1. 응답자 일반 인적 사항

1) 응답자 일반 현황

(1) 성별, 연령, 지역별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성	64	37.0
	여성	109	63.0
귀하의 연령(나이)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10대	10	5.8
	20대	37	21.4
	30대	77	44.5
	40대	38	22.0
	50대	8	4.6
	60대 이상	3	1.7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제주시(동지역)	99	57.2
	제주시(읍면지역)	52	30.1
	서귀포시(동지역)	10	5.8
	서귀포시(읍면지역)	12	6.9

(2) 학력별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초졸	10	5.8
	중졸	24	13.9
	고졸	46	26.6
	대졸	69	39.9
	대학원졸	23	13.3
	무응답	1	0.6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닌다면 어디서 다니셨습니까?	국내대학	15	8.7
	국내대학원	5	2.9
	해외대학	21	12.1
	해외대학원	2	1.2
	무응답	130	75.1

(3) 국적 및 가족인원별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29	16.8
	중화인민공화국	144	83.2
귀하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1명	4	2.3
	2명	21	12.1
	3명	63	36.4
	4명	47	27.2
	5명	26	15.0
	6명	4	2.3
	10명	2	1.2
	무응답	6	3.5

(4) 직업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개인사업(CEO 등)	9	5.2
	회사원(계약직, 사무직, 항공사, 노동자 등)	22	12.7
	교사(유치원 및 교육관련 등)	7	4.0
	교수	1	.6
	자영업(미용업, 보험업, 부동산업, 상업, 식당업, 자유업, 판매업 등)	14	8.1
	전문직업(건축사, 재무회계, 엔지니어, 통역사 등)	25	14.5
	서비스업(호텔, 가이드, 면세점 등)	14	8.1
	학생(유학생 등)	11	6.4
	기타(주부, 해외파견 등)	13	7.5
	무직	20	11.6
	무응답	37	21.4

2) 조사결과 통계

(2–1) 귀하는 본인의 정체성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 선택 가능)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는 본인의 정체성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한국인	22	12.0
	중국인	150	82.0
	대만인	1	0.5
	화교	2	1.1
	화인	3	1.6
	기타	2	1.1
	무응답	3	1.6
	화인	3	1.6

(2–2) 귀하가 제주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가 제주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업	14	8.1
	사업	24	13.9
	관광	6	3.5
	기타	127	73.4
	무응답	2	1.2

(2–3) 귀하는 한국인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는 한국인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만하다	53	30.6
	대체로 원만하다	94	54.3
	대채로 불편하다	10	5.8
	매우 불편하다	7	4.0
	모르겠다(무응답)	9	5.2

Ⅱ-3-1 화교와 한국인간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화교와 한국인간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중국인을 차별대우하기 때문에	20	11.6
	한국에 동화(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8	4.6
	서로의 민족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19	11.0
	서로 문화교류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30	17.3
	기타	13	7.5
	무응답	83	48.0

Ⅱ-4 화교와 한국인 및 기타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는 화교와 한국인 및 기타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22	12.7
	대체로 찬성한다	102	59.0
	대체로 반대한다	12	6.9
	매우 반대한다	3	1.7
	모르겠다	29	16.8
	무응답	5	2.9

Ⅱ-5 귀하는 新화인 · 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는 신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7	9.8
	대체로 그렇다	54	31.2
	그렇지 않다	53	30.6
	매우 그렇지 않다	7	4.0
	모르겠다	39	22.5
	무응답	3	1.7

II–5–1 新화인 · 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44	25.4
	신화교들의 능력과 교육열 때문에	26	15.0
	신화교사회의 단결과 상호협력 때문에	21	12.1
	기타	14	8.1
	무응답	68	39.3

II–5–2 新화인 · 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신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사회가 신화교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23	13.3
	신화교들의 능력, 교육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5	14.5
	신화교사회의 단결과 상호협력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37	21.4
	기타	17	9.8
	무응답	71	41.0

II–6 한국의 新화인 · 화교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는 한국의 신화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31	17.9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	47	27.2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29	16.8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19	11.0
	모르겠다	47	27.2

II–8 귀하는 중국 정부가 한국 新화교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는 중국 정부가 한국 신화교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많이 지원하고 있다	27	15.6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	44	25.4
	별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	28	16.2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	14	8.1
	모르겠다	60	34.7

II–10 한국에서 계속 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인 경우 순서를 써주세요.)

구분		빈도					백분율				
		1	2	3	4	5	1	2	3	4	5
한국에서 계속 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이 좋아서	66	5	1	1		38.2	2.9	.6	.6	
	이미 한국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서	8	5	2			4.6	2.9	1.2		
	그곳에 가도 차별이 있을 테니까	3		1	1	1	1.7		.6	.6	.6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서	37	9				21.4	5.2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20	2	1			11.6	1.2	.6		
	기타	22	2				12.7	1.2			
	무응답	17					9.8				

II–11 귀하는 귀화를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는 귀화를 생각하십니까?	생각한다	38	22.0
	생각하지 않는다	120	69.4
	무응답	15	8.7

II –11–1 귀화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까지 선택하세요.)

구분		빈도			백분율		
		1	2	3	1	2	3
귀화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이 싫다	7			4.0		
	어차피 한국을 떠날 테니 불필요하다	27	4		15.6	2.3	
	대만국적 유지가 사업상 불가피하다			2			1.2
	한국 국적으로 살면 불편하다	10	2	1	5.8	1.2	.6
	중국사람이므로 반드시 중국(대만) 국적을 지켜야 한다	45	7		26.0	4.0	
	귀화를 안 하는 것이 (본인 또는 자녀가) 한국의 대학진학에 유리하다	1	9	1	.6	5.2	.6
	귀화를 하면 화교 정체성이나 문화를 잃을 것 같다	1	1	7	.6	.6	4.0
	귀화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21	6	3	12.1	3.5	1.7
	화교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된다	1	1	1	.6	.6	.6
	기타	18			10.4		
	무응답	42			24.3		

II –11–2 귀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1	2	1	2
귀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이 좋다	20		11.6	
	어차피 한국을 살 테니 귀화를 해야 한다	11		6.4	
	대만이나 중국국적으로 살면 불편하다	4		2.3	
	귀화하는 것이 사업상 불가피하다	7		4.0	
	한국식 교육을 받기 위해 귀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3		1.7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귀화가 불가피하다	3		1.7	
	기타	20		11.6	
	무응답	105		60.7	

II–12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이 귀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이 귀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찬성한다	13	7.5
	찬성한다	31	17.9
	아무래도 상관없다	98	56.6
	반대한다	17	9.8
	전적으로 반대한다.	3	1.7
	무응답	11	6.4

II–13 자녀가 (만약 미혼이면 본인이) 결혼을 한다면 귀하가 선호하는 자녀 배우자(또는 본인 배우자)의 민족을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십시오.

구분		빈도	백분율
자녀가 (만약 미혼이면 본인이) 결혼을 한다면 귀하가 선호하는 자녀 배우자(또는 본인 배우자)의 민족을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십시오.(1순위)	한국 화교	13	7.5
	대만인	2	1.2
	대륙인	90	52.0
	한국인	29	16.8
	다른나라 화교	4	2.3
	기타	25	14.5
	무응답	10	5.8

III–1 귀하께서는 평소 중국음식을 어느 정도 먹습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께서는 평소 중국음식을 어느 정도 먹습니까?	중국음식만 먹는다	13	7.5
	한국음식보다 중국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57	32.9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똑같이 먹는다	88	50.9
	중국음식보다 한국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8	4.6
	한국음식만 먹는다	2	1.2
	무응답	5	2.9

Ⅲ-2 귀하는 新화교와 舊화교라는 호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는 新화교와 舊화교라는 호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치에 맞는다	42	24.3
	이치에 맞지 않는다	14	8.1
	별로 관심이 없다	102	59.0
	다른 명칭이 있어야 한다.	8	4.6
	무응답	7	4.0

Ⅲ-3 귀하는 화교와 다문화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귀하는 화교와 다문화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교도 다문화가정이다	55	31.8
	화교는 다문화가정과 다르다	21	12.1
	별로 관심이 없다	81	46.8
	다른 명칭이 있어야 한다	5	2.9
	무응답	9	5.2

3) 설문조사지

제주화교 연구 설문조사(신화교 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주중국학회입니다. 금번 저희 학회에서 '제주화교 역사 및 문화유산 발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구화교 및 신화교를 대상으로 제주화교의 실태와 애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처리되므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중국학회

Ⅰ. 인적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나이)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제주시(동 지역) ② 제주시(읍 · 면 지역)

③ 서귀포시(동 지역) ④ 서귀포시(읍 · 면 지역)

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5.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닌다면 어느 학교입니까?

1) 대학

2) 대학원

6.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① 대한민국 ② 중화인민공화국(中國) ③중화민국(臺灣) ④ 그 외( )

7. 귀하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8.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II.

1. 귀하는 본인의 정체성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 선택 가능)

① 한국인 ② 중국인 ③ 대만인 ④ 화교 ⑤ 화인 ⑥ 기타( )

1-1. 1과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 귀하가 제주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 ② 사업 ③ 관광 ④ 기타

3. 귀하는 한국인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원만하다 ② 대체로 원만하다 ③ 대체로 불편하다

④ 매우 불편하다 ⑤ 모르겠다(무응답)

3-1. (3번에서 ③번 혹은 ④번을 선택한 분만 답하세요)

화교와 한국인간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한국이 중국인을 차별대우하기 때문에

② 한국에 동화(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③ 서로의 민족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④ 서로 문화교류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⑤ 기타( )

4. 귀하는 화교와 한국인 및 기타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⑤ 모르겠다(무응답)

5. 귀하는 신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모르겠다(무응답)

5–1. (5번에서 ①번 혹은 ②번에 답한 분만 답하세요.)

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한국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② 신화교들의 능력과 교육열 때문에

③ 신화교사회의 단결과 상호협력 때문에

④ 기타( )

5–2. (5번에서 ③번 혹은 ④번에 답한 분만 답하세요.)

신화교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한국사회가 신화교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② 신화교들의 능력, 교육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③ 신화교사회의 단결과 상호협력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④ 기타( )

6. 귀하는 한국의 신화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신화교사회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② 신화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③ 현재는 차별대우를 하지만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④ 기타( )

7. 귀하가 한국에서 당하거나 알고 있는 차별대우에 대해 작성해주십시오.

(교육, 취업, 승진, 공공기관, 은행, 상업적인 서비스 등)

8. 귀하는 중국 정부가 한국 신화교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②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

③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④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⑤ 모르겠다(무응답)

9. 귀하는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 화교를 지원해준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많이 지원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

③ 별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

⑤ 모르겠다(무응답)

10. 한국에서 계속 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인 경우 순서를 써주세요.)

① 한국이 좋아서	
② 이미 한국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서	
③ 그곳에 가도 차별이 있을 테니까	
④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서	
⑤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⑥ 기타( )	

11. 귀하는 귀화를 생각하십니까?

① 생각한다. ② 생각하지 않는다

11-1 귀화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순서대로 3가지까지 선택하세요.)

① 한국이 싫다	
② 어차피 한국을 떠날 테니 불필요하다	
③ 대만국적 유지가 사업상 불가피하다	
④ 한국 국적으로 살면 불편하다	
⑤ 중국사람이므로 반드시 중국(대만)국적을 지켜야 한다	
⑥ 귀화를 안 하는 것이 (본인 또는 자녀가) 한국의 대학진학에 유리하다	
⑦ 귀화를 하면 화교 정체성이나 문화를 잃을 것 같다	
⑧ 귀화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⑨ 화교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된다	
⑩ 기타( )	

11-2. 귀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한국이 좋다	
② 어차피 한국을 살 테니 귀화를 해야 한다	
③ 대만이나 중국국적으로 살면 불편하다	
④ 귀화하는 것이 사업상 불가피하다	
⑤ 한국식 교육을 받기 위해 귀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⑥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귀화가 불가피하다	
⑦ 기타( )	

12.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이 귀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혼일 경우에도 미래의 자녀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아무래도 상관없다

④ 반대한다 ⑤ 전적으로 반대한다.

13. 자녀가 (만약 미혼이면 본인이) 결혼을 한다면 귀하가 선호하는 자녀 배우자(또는 본인 배우자)의 민족을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십시오.

① 한국 화교 ② 대만인 ③ 대륙인 ④ 한국인

⑤ 다른나라 화교 ⑥ 기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Ⅲ. 기타

1. 귀하께서는 평소 중국음식을 어느 정도 먹습니까?

① 중국음식만 먹는다

② 한국음식보다 중국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③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똑같이 먹는다

④ 중국음식보다 한국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⑤ 한국음식만 먹는다

2. 귀하는 新화교와 舊화교라는 호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이치에 맞는다

② 이치에 맞지 않는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다른 명칭이 있어야 한다.

이유에 대해 간단히 써주세요.

3. 귀하는 화교와 다문화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화교도 다문화가정이다

② 화교는 다문화가정과 다르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다른 명칭이 있어야 한다

이유에 대해 간단히 써주세요.

– 긴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진자료

1) 양덕훈 선생 제공 사진자료



〈제주화교소학교 성립기념 중화민국 41년 10월 10일〉



〈제주화교소학교 제20회 졸업사진 민국67년 7월 18일〉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국경일 행사 모습〉



〈국경일 행사 모습〉



〈국경일 행사 모습〉



〈국경일 행사 모습〉



〈입학식 모습〉



〈졸업식 모습〉



〈졸업식 모습〉



〈졸업식 모습〉



〈졸업식 행사 모습〉



〈졸업식 행사 모습〉



〈운동회 행사 모습〉



〈화교 사촌들끼리〉

2) 김은영 선생 제공 사진자료



〈졸업증서〉



〈한라문화제 가장행렬〉



〈한라문화제 가장행렬〉

3) 화교 면담 사진자료



〈왕복안 선생 내외〉



〈왕복안 선생〉



〈왕복안 선생 면담〉



〈왕복안 선생이 운영하는 덕성원〉



〈손립본 선생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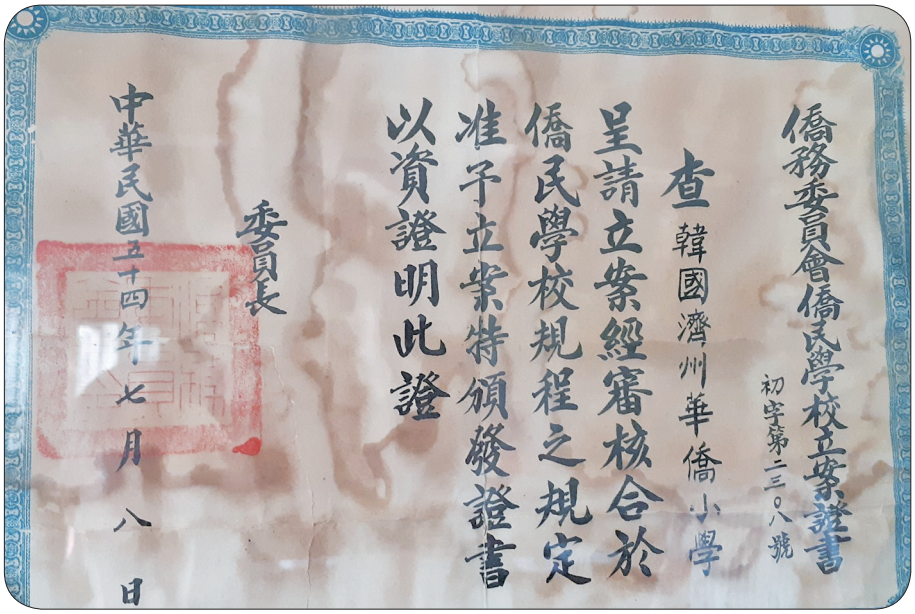
〈손립연 여사 면담〉



〈손립연 여사가 운영하는 보영반점〉



〈화교소학교 모수분 선생 면담〉


僑務委員會僑民學校立案證書
初字第二三〇八號
查韓國濟州華僑小學
呈請立案經審核合於
僑民學校規程之規定
准予立案特頒發證書
以資證明此證
委員長
中華民國五十四年七月八日

〈화교소학교 설립 인증서〉



〈화교소학교 내부 모습〉



〈화교소학교 제1회 유치부 졸업식 모습〉

4) 연태 출장 사진자료



〈연태 시내〉



〈연태 魯東大 이준 교수(역사학과) 등 연태 전문가와〉

5) 화교사 세미나 사진자료



〈화교사 세미나 참석자 기념촬영〉



〈주제주중국총영사 펑춘타이 축사〉



〈제주중국학회 회장 심규호 환영사〉



〈인천대 중국학술원 이정희 교수 기조강연〉



〈신재경 선생 발표〉



〈양세영 선생 발표〉

연구진

연구책임	양 세 영	홍익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공동연구	심 규 호	제주국제대 석좌교수
	후 림	제주한라대 국제의료중국어통역학과 교수
	신 재 경	전 일본 세이비(成美大学)대 교수
	김 은 영	제주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김 규 태	제주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제주학연구 63

제주화교 역사 및 문화유산의 발굴에 대한 연구

발행인 ‖ 김 동 전
발행일 ‖ 2019년 11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 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721-2 9309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